

# 함께 일하는 사회

www.  
hamkke.  
org

Work  
Together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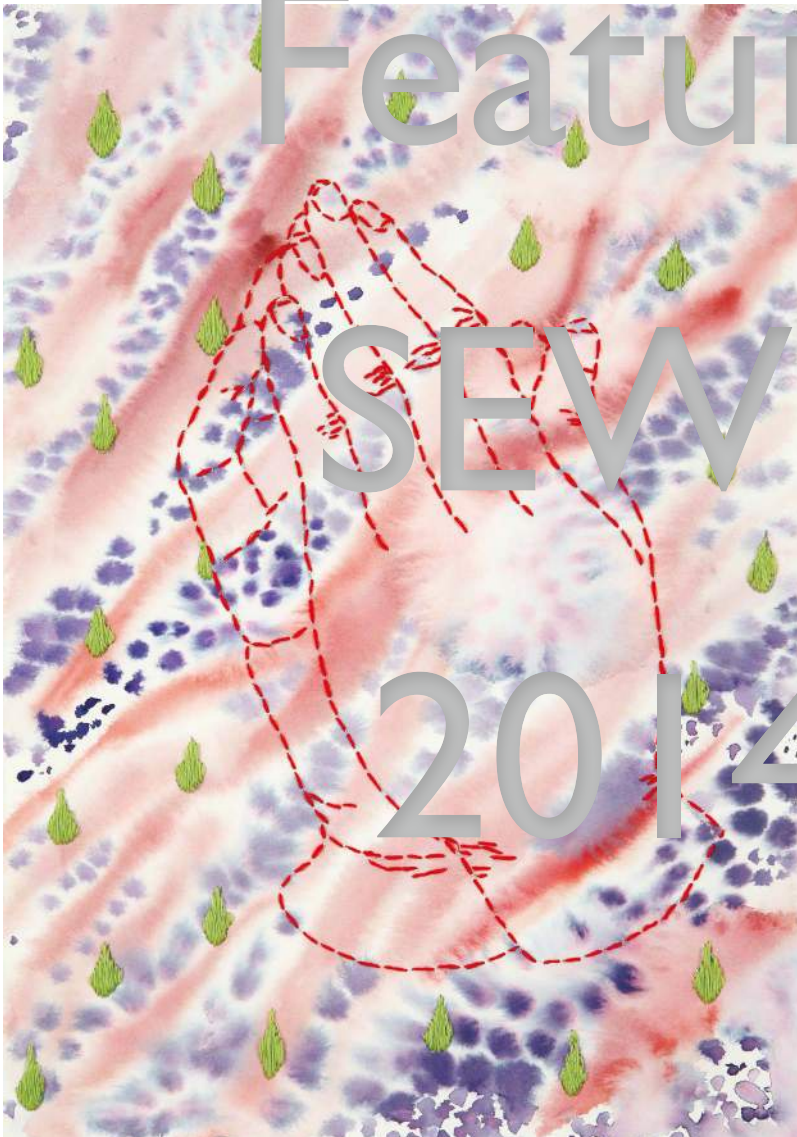
2014

21

## Special Feature

### SEWF

### 2014



# 한국 최초의



# 다문화 방문 산후조리,

외국인 인구 150만 시대,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수많은 다문화여성들은 남모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누리맘은 다문화여성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양성, 같은 국적의 산모들에게 파견하는 방문산후조리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여성들의 빛나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누리맘은 다문화여성의 모국어 사용능력과 문화적 특색을 살린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다문화여성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 Opening

2014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해였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온 사회가 국민적 트라우마를 애기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회'라는 말이 유행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Work Media를 지향하는 『함께 일하는 사회』는 위로가 필요한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안적인 일을 고민하는 집단이니만큼, 위로하는 일(work)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희망'을 애기하고 싶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회, 위로하는 일이 필요한 사회> 특집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2008년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로 시작된 재단의 국제교류사업이 세계 사회적기업가들의 축제인 '사회적기업월드포럼'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 소식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높은 빌딩들로 둘러싸인 도심에서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서울 도심 건물 옥상에서 꿀벌을 키워 꿀 좋은 꿀을 생산하고, 꿀벌 생태계를 보호하는 사회적기업 '어반비즈서울'과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버섯 재배 키트로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선물하는 '꼬마농부 버섯재배키트' 체험기가 그 건강한 기운을 전해 드립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일과 함께하는 평범한 이들의 일상을 드로잉으로 세밀하게 표현한 전주영 작가의 작품도 첫선을 보입니다. 2014년도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올 한해 어떠셨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마음을 전하며 살았나요? 각박한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방법은 바로 옆에 있는 이들과의 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 Contents

착한소비365	다누리맘	02
커버스토리	문화예술창작자 지원캠페인 _ 김소연 작가	04
특별기획	<b>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를 꿈꾼다!</b>	06
연중기획	이 땅의 청년으로 산다는 것 _ 제3화 청년과 자립	14
WT가만난사람&특집	위로가 필요한 사회, 위로하는 일(work)이 필요한 사회	20
	• 이영수 심리기획자 _ 나는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 인터뷰	
	1. 기억으로 살아가기 _ 제타랩	
	2.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_ 공감인	
	3. 상담의 문턱을 낮추다 _ 토닥토닥협동조합	
	4. 다른 문화인과의 만남을 통한 힐링 _ 라오스 푸딩댕 재충전 캠프	
이슈 1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하는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중간평가좌담회	28
이슈 2	삼성SDS와 함께하는 (예비)사회적기업 IT기기 및 교육 지원과 프로보노 활동	32
사회공헌백서	한국수출입은행 _ 희망을 담은 씨앗 한 톨의 힘	34
동고동락	향기내는사람들 임정택 대표이사 &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박원진 대표 _ 장애 비장애의 벽을 넘어 사람 속에서 살아가기	36
달인발견	(주)두레마을 물류사업부 정지수 대리 _ 달인의 미소를 가진 청년	40
현장 속으로	소셜벤처 어반비즈서울 _ Don't Worry, Bee Happy!	42
기부美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보증자리를 찾다	44
해외통신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제5탄: 프놈펜 프렌즈인터내셔널 _ 기부자들의 마음이 모여 꿈이 현실로	46
칼럼	그린보이 _ 참 잘했다고 생각 하는 일	48
착한서포터즈	'지구를 구하는 버섯 친구' 버섯 키우기 키트 체험기 _ 착하게 살아가기의 어려움	50
일과삶	전철 안 삶의 풍경	52
WT소식	재단 동정 및 활동	54



- 1999**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대학  
마스터 순수미술 졸업
- 2009**  
개인전 <Into Drawing 4>  
소마 미술관 드로잉 센터, 서울 외 다수
- 2010**  
개인전 <공중에서 태어나다>  
포스코 미술관, 서울
- 2012**  
<Via inspiration>  
갤러리 K.ark, 서울 외 다수
- 2013**  
<Girl's generation>  
Space Sottenseed, 싱가포르
- 2014**  
<Breeze ART Fair> 복합문화공간  
NEMO, 에이컴퍼니 기획, 서울

## 김소연

### 이 호의 작가

#### 내면의 풍경

작가 김소연의 작품은 기이한 풍경을 담고 있다. 나무인 줄 알고 들여다보았더니 나뭇가지 대신 손들이 뻗어 있고, 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갖가지 동물들이 들어있다. 이처럼 작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의 파편을 한데 모아 낯설고도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고, 이 미스터리는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적 현실과 영적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작가는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소통의 체계를 만들어 간다.

최근에는 평면 작업에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에 바느질 드로잉을 더해 더욱 풍성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있다. 표지에 실린 작품 <기도> 역시 바느질 드로잉 작품 중 하나로, 기도하는 손과 눈물인지 빗방울인지 알 수 없는 물방울들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색채 위에 흩어져 있다.

동물과 인체 장기의 무의식적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형태는 편안하고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기이하고 긴장, 불안, 갈망 등의 감성이 느껴진다. 이는 소통 불가능한 것 또는 불안정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작가의 갈망 또는 내면의 풍경으로 볼 수 있다.

## INTERVIEW.

### 작품의 특징인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독일 유학시절 처음 회화를 배우며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꾸준히 콜라주 기법을 활용해 작업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오리고 자르면서(이 순간은 마치 영화를 만드는 편집자의 모습과 같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화면을 연출해요. 이 전에는 한 번도 합쳐진 적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 여러 이미지를 한데 묶음으로써 회화가 가진 상상의 깊이를 확장하고 있어요.


### 작업은 작가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제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제 주위를 둘러싼 세상의 부스러기와 만나 다시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낯설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만들어져요. 저는 그것을 콜라주로 표현하죠. 이렇게 이미지의 조합과정에서 형태가 왜곡되면서 의도치 않게 낯선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면의 풍경에 점차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요.

### 요즘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하시나요?

'육체를 넘어선 신체'라는 가제를 두고 작업하고 있어요. 저는 새롭고 신비로운 것(비록 이성적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 하더라도)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인간의 감정과 연결된 신체, 즉 육체를 넘어선 정신적인 무언가를 쫓고 있어요. 신체를 이용하여 제 내면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탐구해나가는 중이에요.

### 앞으로의 계획은?

제 회화 작업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진화했어요. 지금은 도예를 시작했는데 도예와 회화를 접목해보고 싶어요. 

1. 무제  
24x32cm, 종이에 과슈, 2011
2. 손가락 나무  
146x110.5cm, 캔버스에 유채, 2008
3. 미스터리한 책  
130x162cm, 캔버스에 유채, 2010-2014

<문화예술창작자 지원캠페인> 사회적기업 '에이컴퍼니'와 함께합니다.

에이컴퍼니는 새로운 미술 기획을 통해 더 많은 예술가와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 유통을 실천하며, 예술을 통한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를 고민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www.acompany.asia / www.artistfanclu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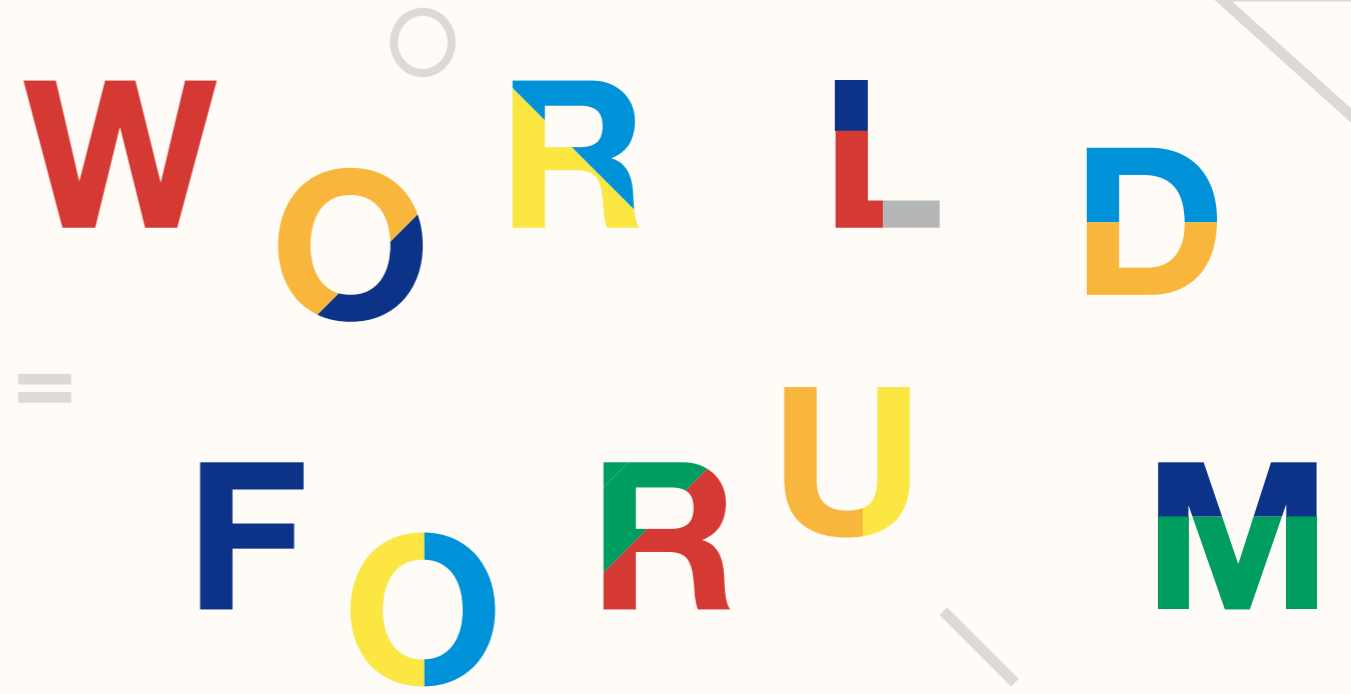
- 표지 작품
1. 기도  
24.5x33cm, 종이에 과슈, 바느질 드로잉, 2010
  2. 심장  
24.5x33cm, 종이에 콜라주, 2010
  3. 2701  
21x29.5cm, 종이에 과슈, 바느질 드로잉, 2014



# 사회적기업 월드포럼 2014,

##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를 꿈꾼다!

글  
라현운 홍보팀



사회적기업가들의 교류와 협력의 장인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이하 SEWF 2014)가 10월 14일부터 3일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는 대회에는 세계 30여 개국, 1천여 명의 국내외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및 전문 관계자들이 참여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장을 펼쳤다.

대한민국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각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이뤘다. 이런 정책경험에 힘입어 세계 각국의 사회적기업가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대회 첫날인 10월 14일 진행된 개막식 개회사에서 송월주 한국조직위원회 대회장(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은 "세계 사회적기업 간의 지혜와 마음을 한데 모으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더욱 공고해 지는데 이번 대회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축사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국제 포럼이 국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EWF 2014에서는 '사회혁신', '사회통합'의 역할 모색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할 요소로 '사회투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 마지막 날인 16일 폐회식에서는 미국 연방하원의원 등을 역임한 김창준(현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정거래분과위원) 박사가 '사회적기업을 통한 긍정적 사회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주제로 폐회연설을 하였으며, 최종태 한국조직위원장이 '서울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송월주 대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포럼의 개막식에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바 있는 「100년 후(The next 100Years)」 저서를 통해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미국 Stratfor 대표) 박사가 처음으로 내한해 '세계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의 변화'를 주제로 한 특별연설을 펼쳐 언론과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았다.

더불어 이번 포럼의 사전행사로 12일과 13일에는 '청년, 내일의 희망을 말하다'를 슬로건으로 '청년캠프(Youth Camp)'와 국내 사회적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한국 전문문화를 체험하는 '사회적기업 투어'가 각각 진행되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본 행사와 동시에 진행된 사회적기업 페어(Social Enterprise Fair)에는 국내외 사회적기업,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단체),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CSR 담당자, 사회적기업 관련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이 참여해 사회적기업 상품전시 부스 약 21개를 운영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SEWF 2014 한국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사회적기업과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들에게 ▲국가 아젠다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사회적경제 주제 자립도 강화 방안 모색 ▲사회적경제 주체의 발전적 연대강화 방향 모색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향 모색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발전에 관한 공감대 형성 ▲국제적 교류와 위상제고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의의와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한편, 다음 대회 개최지는 이탈리아 밀라노로 결정되었으며, 내년 7월 'Growing a new economy A nurturing Ecosystem' 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대회 홈페이지([www.sewf2015.org](http://www.sewf2015.org))에서 가능하다.

# SEWF 2014

## 행사 한눈에 보기

### [제1주제]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

이번 대회의 첫 번째 주제는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이었다. 이 세션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창조적 방식으로 긍정적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교육, 환경, 보건의료 등의 영역에서 세계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창조경제, 창의사회의 역할자로서 사회적기업을 조명하고 이에 관한 역할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사회혁신' 세션의 기조발제는 '사회적기업의 가치혁신과 사회적 신모델'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의 수석 마케팅 임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Jerr Boschee(The Institute for Social Entrepreneurs 대표)는 발표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여년간 영국을 무대로 사회 혁신 분야에서 일해 온 Kevin Robbie(Social Ventures Australia 전무이사)는 사회적기업은 시스템을 바꿀 혁신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정부는 정책을 제안하던 예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2주제] 사회통합과 사회적기업

두 번째 주제는 '사회통합과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이 고용, 복지, 커뮤니티, 국가 및 국제사회의 불균형과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들의 새로운 해결방식으로써 사회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세계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조명했다. 제2주제 기조발제는 '고용, 복지, 커뮤니티, 양극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네, 사회적기업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 양성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미국에서 사회 정의, 평등,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다문화 모델개발 일을 해온 Christina Garcia(REDF 상무이사)는 미국과 REDF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으로 복지를 향상시켜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역설했다.

영국의 Rachael McCormack(Highlands and Islands Enterprise(HIE) 이사)는 인구 50만이 채 안 되는 시골에서 지역사회와 경제발전 통합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HIE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를 꿈꾼다!

## 메인 프로그램

이번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Social Change through Social Enterprise)'라는 큰 주제 속에서 사회혁신, 사회통합, 사회투자 등 3가지 소주제가 논의되었다. 3가지 주제 기조발제에서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 [제3주제] 사회투자와 사회적기업

제3주제 '사회투자와 사회적기업'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자본시장의 형성과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사회적기업 발전의 지기반으로서 사회투자'를 주제로 진행된 기조발제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과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강조되었다. 영국 정부에서 사회적 투자를 맡으며, 정부혁신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Kieron Boyle(Social Investment of OCS 본부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는 커져 가는데 반해 그들이 가진 자금은 일반 기업에 15%밖에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을 소개하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상달 융합경제연구소 대표는 장기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투자자를 사회적 투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조직구조와 거버넌스(협력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얘기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사회적책임투자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연기금이 450조원에 달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전제되지 못하는 현실을 얘기하며 사회적 금융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1. 청년캠프
2. 오픈워크샵
3. 사회적기업 투어
4. 사회적기업 페어
5. 갈라디너



## 서브 프로그램



### 청년캠프 10.12(일) ~ 13(월)

사회적기업의 내일을 여는 주역인 청년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청년캠프를 개최하여 청년사회적기업가의 양성이 사회적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사회적기업월드포럼 세계운영위원회 Jim Schorr 위원(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의 청년사회적기업가를 위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동중인 청년사회적기업가의 사회적기업 운영사례 발표와 열린 토론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특히 열린토론에서는 청년사회적기업가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환경조성 방안을 제안하고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담백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사회적기업 투어 10.12(일) ~ 14(화)

SEWF 본행사에 앞서 진행된 사회적기업 투어는 사회적기업월드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한국의 사회적경제 현장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참가자들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체험하며, 사회적경제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사회적기업 투어는 1박2일 코스(12일~13일)와 당일 코스(14일) 등 두 개의 코스로 진행되었다.

### 사회적기업 페어 10.14(화) ~ 16(목)

국내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비롯해 STP, ASES 사업참여자, 정부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해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사회적기업 컨설팅과 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 사회적기업 페어가 행사 기간 내내 대회장 한 편에서 진행되었다.

국내외 21개의 사회적기업 상품전시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대회 참가자들 간 정보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킹존' 운영, 사회적기업 도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서존', 대회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 다양한 주제로 세계 각국의 사회적기업가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기업가 스피치' 등이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다.

### 특별세션1 10.14(화)

'한국의 사회적경제 발자취'를 주제로 진행된 특별세션에서는 한국 사회적경제의 태동과 발전양상, 발전 과정에서의 사회 각 계층의 역할 재조명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의 유형 변화를 역사에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현재 시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쟁점과 도전과제를 살펴보았으며, 김기섭 파프리카 인터네셔널 대표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각 시대별 성장과 활동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승욱 충남적정기술연합회 회장은 사회적경제 운동과 지역공동체 재생에 대해 얘기했고,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소장은 자활사업에 대한 소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 오픈 워크샵 10.16(목)


전 세계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사업인 스마일 투게더파트너십(Smile Together Partnership) 공모사업을 홍보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STP 파트너를 대상의 소셜피치 컨테스트를 진행한 '오픈워크샵'이 진행되었다.

또한 STP의 새로운 파트너들의 비즈니스모델을 발표하고 이를 관중과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여 상금을 받는 소셜피치콘테스트(Social Pitch Contest)도 진행되었다. 과테말라의 'Saqil Group' 단체가 최종 우승상금을 거머쥐었으며, 우간다의 'Spouts of Water'가 2위를 차지했다.

### 특별세션2 10.16(목)

특별세션2는 '사회적기업 법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이광택 국제노동법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사회적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국내외 법과 정책의 현황 공유 및 발전 방안 모색하는 자리였다. 또한 한국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상황 현황과 정책실현을 위한 과제 등이 소개되었다.

### 써밋 컨퍼런스 10.16(목)

정부, 기업, 지원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 사회 주체의 역할과 사회적기업의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터뷰 1.  
SEWF 2014 세계운영위원장



피터 홀브룩  
SEWF 세계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영국사회적기업협회 회장)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한 두 주인공,  
피터 홀브룩 SEWF 세계운영위원장과 최종태 한국조직위원장을 만나보았다.

인터뷰 2.  
SEWF 2014 한국조직위원장



최종태  
SEWF 한국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장)

### BUY SOCIAL™

### “BE SOCIAL,

**Q.**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를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의 첫인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지난 10월 13일에 입국했는데, 서울이 참 다이내믹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5년 영국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난 것이 한국과의 첫 인연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한국과의 인연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 후로 많은 한국의 사회적기업가들이 저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2012년 브라질 리우대회에서 함께일하는재단 이사님들을 만나서 한국 개최를 결정하기도 했죠.

**Q.** 혹시 입으신 것이나 가지고 계신 소지품 중에 사회적기업 제품이 있으신가요?

**A.** 물론입니다. 지금 차고 있는 커프스는 소방차 호스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도 소방차 호스로 만들었고, 내부는 폐낙하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엘비스 앤 크리스티라는 사회적기업에서 만든건데요. 대부분 실업자나 정신지체장애인을 고용해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럭셔리 상품들도 만드는데요. 카메론 디아즈가 오스카 시상식에 들고 갔던 핸드백도 여기 제품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속옷도 사회적기업 제품인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웃음). 팬츠퍼퍼티 즉, 빈곤층을 위한 속옷이라는 이름의 사회적기업 상품입니다.

**Q.**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사회적기업 역시 비즈니스입니다. 좋은 물건을 팔고 돈을 벌지요.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일반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고팔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물건을 팔지요. 좋은 일에 쓰려고 판매를 하는 거고, 고용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과 경제발전도 사회적기업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현재 영국의 사회적기업 현황이 약 7만개, 총 생산 약 185억 파운드, 고용자 수 200만 명은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의 사회적기업 현황도 알고 계신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일반 사업체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유럽은 이러한 트렌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U는 차후 7년간 초점을 맞출 7가지 중 한가지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언급하기도 했지요. 현

재 영국은 5개의 기업이 생기면 그 중 하나는 사회적기업일 정도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포지션 정도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국가의 크기가 작을수록 사회적기업이 더 많아지는 형태입니다. 유럽은 지난 5~6년간 경제 침체를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커버해 주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 등을 사회적기업이 커버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지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회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것이 더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Q.** 혹시 사회적기업의 비효율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그건 난센스입니다. 아이스버그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가능성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적기업 전망과 젊은 사회적기업가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한국은 LCD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면서 세계적인 경제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보육문제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회적기업가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의 모든 이슈들이 당신들이 하는 일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 환경, 동물, 복지 등 모든 것을 비즈니스로 바꿀 수 있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E SOCIAL, BUY SOCIAL입니다(웃음). 



### 커지길 기대”

### “사회적기업 관심 · 참여

**Q.**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A.** 사회적기업은 사회혁신의 주체로서 자본주의의 자유와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실현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창출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창의적 자본주의,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조직이자 주체로서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실업 및 사회양극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망적인 대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사회적 가치창출의 선도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적인 생산경제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질병퇴치 등 기초적인 분야에서부터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지난 10월에 치러진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의 한국조직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 대회에 대한 소개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A.** 사회적기업월드포럼은 현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로 일하는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적 포럼입니다. 전 세계의 사회적기업가와 관련 단체들이 모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협동과 혁신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논의와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벌써 7년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의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호주(2009년), 미국(2010년), 남아공(2011년), 브라질(2012년), 캐나다(2013년) 대회에 이어 2014년 10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함께일하는재단이 제7회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Q.** 이번 대회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A.** 이번 대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하듯 세계 각지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혁신, 사회통합, 사회투자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기업 방식을 통해 세계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갈등 해소,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 등의 사회혁신과 변화를 모색한 다양한 사례들이 이 자리에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들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외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도모한 이번 대회의 이 같은 성과를 대회 참가자들의 마음을 모아 ‘서울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서울선언문’에는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 대회에 모인 참가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과 운영원칙에 대한 다짐이 담겼습니다. 더불어 향후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울선언문에서 사람과 공익을 우선하는 운영, 민주적 조직 운영,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한 공정한 배분, 연대와 협력, 독립적 운영이라는 공동의 운영원칙을 세웠으며,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사회적기업이 대안적 경제,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의 본질에 충실히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뜻 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대회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대회를 계기로 보다 많은 국내 기업들과 제반 사회단체(국민, 노동조합, 정부 및 공공기관, 종교단체, 이익단체 등)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금번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대회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인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을 비롯해 SK가 후원기관으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SK는 사회적기업 전문 지원 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하고 대한민국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기업이며, 세계 20여 개국 100여개 사회적기업 투자처와 인클루시브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프로젝트인 ‘글로벌 드라이브 프로젝트사업’에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사회적기업을 후원·육성하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많은 영향과 파급효과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세계 사회적기업가들의

# 말. 말. 말!



**Jerr Boschee (미국)**  
The Institute for Social Entrepreneurs 대표

“사회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사회적기업가)이다.”

**Neil McLean (영국)**  
Social Enterprise Academy Scotland 이사장

“훌륭한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동료는 가장 훌륭한 교육자다. 사회적기업상 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Yuan Ruijun (중국)**  
Center of Civil Society 센터장

“중국에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묻는다면 기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는 자선단체나 비영리단체 또한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본다. 사회적경제의 형태를 가진 소액 금융 사업은 이미 송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Kevin Robbie (호주)**  
Social Ventures Australia(SVA)의 전무이사

“사회적 혁신을 위한 과정은 영화 제작과도 비슷하다. 영화제작에 여러 스태프들이 참여하는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재필 (한국)**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여러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세계가 고심 중이며, 지역 시민과 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그들은 따뜻한 성장을 이끌어 가는 동력이다.”

**도현명 (한국)**  
한국임팩트평가 대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과 이에 대한 이론이나 논문은 많지만, 아직 공식화되고 합의된 기준은 없다. 합의된 기준은 없더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사회적기업들의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Yvonne Strachan (영국)**  
Equality Unit at Scottish Government 본부장

“사회적기업은 변화의 중심이다. 사회적기업은 변화를 이끌어 나갈 힘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월드포럼을 통해 세계의 여러 사회적기업(가)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Claudine Reid (영국)**  
PJ's Community Service 이사

“갈등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떠한 것을 시작할 때 뚜렷한 비전 제시를 하고 그것이 어떤 임팩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Kevin Lynch(미국)**  
Social Enterprise Alliance 대표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 세 영역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비어있는 교집합이 있다. 이 교집합을 담당하는 것이 향후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교집합을 담당할 역량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Kieron Boyle (영국)**  
Social Investment of OCS 본부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는 커져 가는데 그들이 가진 자금은 일반 기업에 15%밖에 안 돼 열악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교황님도 사회투자를 통해서 사회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 사회투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선기 (한국)**  
원주협동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협동조합 운동이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즉 외부적인 힘에 의해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협동조합끼리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협동조합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서로의 협력으로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승욱 (한국)**  
충남정적기술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사회적경제는 자본, 국가가 아닌 사람의 경제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국가로부터의 자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가 발전해야하며, 앞으로는 필요로 하는 공동 주체들의 연대를 통해 현실을 바꾸는 한국 사회적운동이 되어야 한다.”

# 이 땅의 청년으로 산다는 것

글  
이은주 홍보팀

## '청년과 자립'

### 제3화

#### “교육을 받지도, 취업도 하지 않는 청년들”

지난 여름 재단은 니트(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族)이라 불리는 청년 백수를 제대로 조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한일청년 니트 현황과 자립의 실마리' 포럼을 개최했다. 한일 청년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은 우리가 얼마나 니트족에 대해 무관심했던 가를 방증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자립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실패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에서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번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기면 실 새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엄혹한 현실, 그 속에서 한일 청년 전문가 그룹은 치열하게 출구를 찾았다. 이 포럼 이후 재단은 한일청년니트지원실무자교류세미나를 개최해 연구와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 고립의 원인과 자립의 실마리

한일청년니트비교포럼

“20대 니트족입니다. 취업 따윈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직업 따위 가지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에 서 있어서 오래 살 만큼 살았는데 그냥 여기에서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다.” 어느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고민 글이다. 우리 사회에 일명 니트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얼마나 존재할까? 그들은 왜 니트족이 됐을까? 취업할 의사도 없으며,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도 하지 않는 이들을 니트족으로 부르지만, 이것이 수많은 니트족을 제대로 아우르는 정의일까? 재단은 ‘고립의 원인과 자립의 실마리’라는 주제로 한일청년 니트비교포럼을 열어 이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졌다. 이날 행사의 배경은 일본 청년 자립 지원단체인 소다테아게넷이 2,300명의 니트를 직접 만나 인터뷰한 데이터를 의미있게 분석한 책 『若年無業者白書』이 발단이 돼서 개최됐다. 재단은 이 책을 『일본 청년니트백서』라는 E-book으로 번역·출간했다.

### 무업 상태가 되면 탈출하기 힘든 사회

첫 발제는 『若年無業者白書』 공동저자인 니시다 료스케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준교수가 나서 니트족 실태에 대한 데이터의 주요 요소를 설명했다. 그는 “누구라도 무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임에도, 일단 무업 상태에 빠지면 탈출하기 힘든 사회”라며 서두를 열었다.

니시다 교수는 2차 세계대전과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쳐 온 일본은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며 “일본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이런 배경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배경 속에서 “니트 문제가 본인 책임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현재의 무업사회가 도래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니시다 교수는 이번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몇 가지 범주에 따라 니트 기간의 길이가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산관학이 연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민간의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 특히 전 세계에 비슷한 문제를 앓는 나라가 많은데,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 좋은 선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발표를 마쳤다.

### 정확한 분석이 해결의 실마리

구도 게이 소다테아게넷 이사장은 ‘일본 니트의 현황과 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구도 게이 이사장은 재단과 함께 2012년 사회적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지침서인 『청년 사회적 창업하기』를 번역·출간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구도 이사장은 일본에서는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층이 3,600만 명에 이르며, 그 중 1/16명이 니트라고 불리는 무업자라고 설명하며 “한국에서는 청년층 중 니트족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라며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다.

구도 이사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청년무업자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히키코모리(은둔형외톨이)를 전제하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건 비극이다. 히키코모리를 전제로 하면서 많은 수의 젊은이가 문제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다양한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소셜 프로모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도 이사장은 “우선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양복이 없어 취업 면접을 볼 수 없다는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우리 직원이 양복을 빌려줬다. 그 후 취업활동을 못 하는 사람에게 양복을 빌려주자는 이야기가 퍼져서, 약 한 달 만에 4천 벌의 양복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작은 성공사례처럼 비슷한 프로세스를 적용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작고 작은 데이터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언젠가는 소셜 프로모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한일이 협동하듯이 에코시스템을 구축해서 사회문제로 외연화해야 한다”며 지원기관의 역할을 소개했다. “우리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 사회 전체를 끌어들이야 한다. 작은 실마리가 모여 사회 전체가 돕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우선이다.”

### 무중력 사회, 누구나 니트가 될 수 있다

일본 사례의 이야기가 끝나자 방청객들은 한국 니트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목말랐다. 일본이 작은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소셜 프로모션을 해나가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무게감 있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충한 유자살롱(유유자적살롱) 공동대표는 이런 기대감 속에 마이크를 들었다. 유자살롱은 최근 무중력청소소년과 활동한 이야기를 담은 『무중력 사회를 사는 우리 : 유유자적 피플』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김창주 함께일하는재단 전략팀 팀장은 “한국 니트 현황이 2011년도에 130만 명에 이르며 30대 이상 대졸 니트가 급증했으며 여성 니트가 특히 많다. 이는 남성중심의 사회적 문제와 과잉학력의 문제 그리고 고졸자의 사회적 문제가 연관된 것이다”라며 한국의 상황에 대해 짧게 설명하며 방청객의 이해를 도왔다.

이충한 대표는 “한국에서는 니트란 말을 잘 쓰지 않고 청년 실업이란 말을 쓴다. 하지만 그들의 면면은 다양하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취업 중인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하는 것이다. 실업자 중에는 아직 준비 중인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프리타로 지내는 사람도 있다. 취업을 잘하는 사람이 니트보다 자아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오기도 한다”며 한국 니트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니트가 아닌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와 ‘니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이다. 그래서 니트에 대한 유자살롱은 조금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바로 무중력 상태, 즉 나를 끌어당기는 일 혹은 사람이 없는 ‘공중에 뜬’ 상태이다. 이런 정의는 아까 구도 씨가 말한 ‘누구나 니트가 될 수 있다’란 말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니트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니트의 문제를 개인 성향 문제로만 치부해버리고 있다며 “해결방안은 ‘단일하고 단순한 방법은 없다!’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은 최소 10년 정도는 이 문제로 힘들 것이며, 나락의 단계마다 막아줄 장치 혹은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이 다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자립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니트의 반대말은 자립하는 인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립은 하되 상호의존하면서 자립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누구도 혹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혹은 올라갈 수 없다. 진부하지만 필요한 정답은 하나씩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니트에 대한 문제는 그 개념부터 제대로 세우고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니트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고립된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하는 시작일 것이다.

사진제공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 실마리는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한일 청년전문가 대담

일시  
2014년 6월 26일

참석  
김창주 함께일하는재단 전략팀 팀장  
구도 게이 NPO법인 소다테아게넷 이사장  
니시다 료스케 리츠메이칸대학교 대학원  
첨단융합학술연구과 특별초빙 부교수



**김창주** 포럼에 이어 「함께 일하는 사회」 독자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소다테아게넷이 올해 설립 10년을 맞이했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주요 활동이 궁금하다.

**구도 게이** 소다테아게넷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일을 하거나 사회 참여가 어려운 젊은이를 사회와 연결하는 활동이고, 둘째는 그런 젊은이들이 좀 더 쉽게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바꾸는 활동이다. 10년을 되돌아보면 지원하는 연령층이 청년층에서 고등학생 그리고 초·중학생으로 점점 확대된 것 같다.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10대에는 어떤 학생이었는지 알게 된다. 지금까지는 눈앞에 보이는 지원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해 조사해서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건도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연구했고 이것이 소다테아게넷의 새로운 사업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2011년에 최초로 젊은이(아이, 청소년, 청년을 포함)를 위한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특정 단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 법은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 움직임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김창주** 청년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니 반가운 이야기다. 이번에 발간된 「청년무업자백서(일본판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청년무업자, 청년 실업자, 청년 니트 등 대단히 많은 용어가 별 의미 규정 없이 사용되면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혼선을 빚고 있다.

**구도 게이** 사실 '니트'라고 하면 일반인에게는 집에서 게임이나 하며 놀고먹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매체를 통해 굳어진 거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니시다 료스케** 니트족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는 일반인의 이해를 얻고, 젊은이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

**김창주** 한국에서도 니트족 대한 정의에 혼선이 있어서 어떤 통계에서는 170만명, 어떤 통계는 70만명으로 큰 편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번 「일본 청년니트백서」(한국판 제



독)에 한일 니트 정의를 추가해서 넣었다. 「청년무업자백서」는 청년무업자를 '구직형' '비구직형' '비희망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소다테아게넷에서는 자립 지원을 받는 청년 유형을 어떻게 파악하고, 지원하는지 궁금하다.

**구도 게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타입인지 상관없이 모든 청년을 돕고 있기 때문에 유형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우리 같은 하나의 단체에서 모두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 특히 구직형의 경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연결만 해주면 된다. 비구직형은 일을 하고 싶는데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구직형으로 갈 수 있게 상담하고 있다. 비희망형은 일단은 만나기 힘들어서 조금씩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유형별 지원이라고 했는데 실은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건 없다. 지원현장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형별로 뭐가 필요한지 사회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유형별 수요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김창주** 사실 NGO영역에서는 이런 연구·조사가 많이 목말라 있지만 니시다 교수 같은 비영리적인 일을 흔쾌히 해주는 연구자를 만나기 쉽지 않다.


**구도 게이** 일본도 니시다 교수 같은 분을 만나기 쉽지 않다. 처음에는 니시다 교수도 청소년 문제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거절했다. 사실 연구자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로우 데이터(원천데이터)이다. 그걸 보면서 연구자들이 하는 역할은 그래프로 만들고 분석하는 거다. 연구자에게는 돈보다 로우 데이터를 주는 것이 더 매력적인 일이다. 만약 로우 데이터가 없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도 고려해야 한다.

**니시다 료스케** 연구자라는 것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정보가 손에 들어온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김창주** 한일간에 청년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구도 게이** 교류활동 측면에서는 공동조사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한일 공동으로 젊은이에게 필요한 점이 무엇인가 연구해 보고 싶다. 우선은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서 확대해 나가고 싶다. 지금 한일은 동아시아 중에 선진국에 속하는 편이지만 앞으로 대만, 싱가포르 등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라도 한일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국 청년 문제 해결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 같다.

**니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뭐가 작은 일이나 하면 그걸 파악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한 거고, 경향 파악한 다음에야 우리가 뭐가 가능한가? 우선순위가 나올 거 같다.

**김창주** 맞는 말이다. 한일 청년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도 만들겠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하다. 

# 위로가 필요한 사회,

# 위로하는 일(work)이 필요한 사회

WT가 만난 사람\_ 심리기획자 이명수  
“나는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회, 위로하는 4인을 만나다!

1. 기억으로 살아가기\_ 제타랩
2.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_ 공감인
3. 상담의 문턱을 낮추다\_ 토닥토닥협동조합
4. 다른 문화인과의 만남을 통한 힐링\_ 라오스 푸틴당 재충전 캠프

최근 한국인 여섯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우울증 치료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한 민간 연구소는 올해 국내 트렌드로 '위로가 필요한 사회'라는 키워드를 내놓았다. 고용·주거·노후 불안은 물론, 최근 세월호 참사와 군대 내 인권문제 등 충격적인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한국 사회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 모른다.

전 국민에 대한 사회적 치유가 필요한 시기, 관계의 단절이 심화되고 상처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일상 속에서,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위로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나가야 할 과제가 됐다. 위로하는 일(work)은 그래서 다시 조명받고 있다. 힐링, 멘토, 명상, 상담 등 유행처럼 번졌던 '상품'으로서의 위로는 아니라 한 사람이 사회 안에서 바로 서고 진정한 의미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위로하는 일'이 절실해지고 있다. 위로를 '일'로 삼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좀 더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위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영긴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본다.

WT가 만난 사람  
이명수 심리기획자(치유공간 이웃 대표)

글  
라현운 홍보팀

## “나는 사람에게

## 마음이 있다는 걸

## 알려주는

## 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회, 위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특집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심리기획자 이명수와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부부'였다. 세월호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심리적 재난상태에 빠졌을 때 가장 발 빠르게 유가족을 만나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던 것이 이들 부부였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들 가족을 위해 평택에 심리치유공간 '와락'을 만들었을 때도, 최근 안산시 단원구로 이사까지 가며 아름다운 재단·한겨레21과 손잡고 '치유공간 이웃'을 열었을 때도 이들 부부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이웃'을 자처했다. 자식을 차가운 바닷물에 떠나보낸 부모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잠시 쉬어갈 따뜻한 아랫목을 내줄 그런 이웃. 실컷 울라고 자리를 내어주고 옆에서 도닥여 줄 이웃. 남편인 이명수 심리기획자는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치유 인프라 설계를, 아내 정혜신 박사는 그 토양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일을 하면서 말이다.

이명수 씨의 직업은 '심리기획자'다. 특이하다. 우리나라에 단 한 명뿐인 직업이라니 그럴만하다. 그는 심리기획자를 한 마디로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치유 방법도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이 있다. 상처 난 마음이 일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밥도 먹고 다독여주는 것. 바로 '이웃'을 통한 치유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세월호 유가족처럼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도 너무 많다. 이들에게 빨간 약을 발라주고, 험터가 돼줄 그와 같은 '심리기획자'가 절실하다.

이 시대 위로하는 사람들의 대표주자 이명수 심리기획자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지난 10월 1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치유공간 이웃'을 찾았다.

'치유공간 이웃' 상담실에서 만난 이명수 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안 좋아 보였다. 눈가가 살짝 충혈된 것이 금방도 운 듯해 보여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애들(세월호 희생자들) 얘기만 나오면 지랄 같죠. 정혜신 씨가 주로 여기서 상담하는데 오후에도 계속 상담이 있어요. 저녁에 보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안산이란 지역은 심리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이예요. 사람들의 슬픔, 고통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곳이죠. 우리도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 자연서도 밥 먹다가도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명수 씨 부부는 '치유공간 이웃'에 전념하기 위해 최근 안산시 단원구로 이사를 왔다.)

**유가족이나 주변인들의 아픔이 가장 크겠지만,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그 문제의 파장이 너무 크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다들 답답해하는 거 같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유가족들이나 단원과 학생, 선생님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도울 수 있다 하더라도, 세월호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들과 일반시민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가진 자원들로는 한계가 있으니. 얘기하신 대로 이 참사가 너무 거대하고 상처가 깊어서 정신과 의사 개인이 돕고 지원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다른 방법으로 고민했던 게 바로 '이웃 치유자'라는 개념이었어요.

**'이웃 치유자'라는 개념이 생소합니다.**

트라우마는 정신과 진료 중에 유일하게 외부적인 요소로 생기는

병이라 내가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적인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죠. 여기 들어오며 보셨겠지만 자원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도 돕고 싶다면 전국에서 올라온 분들이에요.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청소도 하고, 그림을 그려 보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가 '이웃 치유자'예요. 대가 없이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서로 감동 받으면서 "아! 아직 세상은 살만해"하면서 자기 치유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유가족이랑 무슨 상관이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유가족들에게는 자기에게 칼질하는 사람들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 밥도 해주고, 멀리서 와주고 그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그분들도 "우리가 혼자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힘을 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웃 치유자)을 계속 유가족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우리 치유의 핵심이고, 그 중심에 '치유공간 이웃'이 있어요. 저는 여기를 치유의 공간이라기보다 치유를 잘하기 위한 베이스캠프라 생각하고 설계했어요. 다치면 와서 빨간약도 바르고, 힘들면 좀 쉬었다 가고... 그렇게 1년이고 10년이고 지원해주는 거죠. 여기는 앞에 나서거나 표 나는 조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공간인 거죠.

이 대목에서 그의 눈이 충혈되고 목이 뻐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유가족들 얘기만 나오면 울음이 복받친다.

'이웃 치유자'라는 것이 서로서로 보며 치유를 받는 거네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돕기 위한 심리치유공간 '와락'때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치유에서 '밥 먹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외부 요인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 밥은 정말 중요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밥상을 우리는 '치유밥상'이라고 하

위로가 필요한 사회, 위로하는 일(work)이 필요한 사회

는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정말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쌍용차 '와락'때도,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성으로 준비했던 게 '식기'예요. 여기 식기들이 모두 전문 작가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수 흙을 빚고 불을 지펴내 만든 것들이예요. 음식 재료도 무조건 최고로 좋은 걸 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사치 아니냐고 하는데, 치유밥상의 목적은 그냥 잘 먹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는지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게 치유의 시작이니까요.

위로가 필요한 사회에서 위로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심리기획자'라는 직업이 참 낯설어요.

낯설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는 나밖에 없으니까(웃음). 뭐하는 일인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저는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직업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사람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고, 역사적으로도 집단 트라우마가 심해요. 심리기획자는 이런 게 치유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고 시스템(치유 인프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테이블 하나도 다 그런 설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상담방도 상담자가 아무리 울어도 밖으로 들리지 않게 이중문으로 되어있죠. 그런 것도 다 이런 설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설계를 하는 일이예요.

이날 우리가 인터뷰를 한 곳은 유가족들이 주로 자신의 얘기를 나눌 때 이용하는 '상담방'이었다. 이 상담방의 문은 상담받는 사람들이 마음껏 울어도 밖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게 이중문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공간을 기획한 이의 배려가 엿보였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단 한 명뿐이라는 '심리기획자 이명수' 씨의 기획이다.



'심리기획자'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치유'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이식하는 사람이 적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국은 교통사고가 나면 심리코디네이터가 붙어서 가족들 위로부터 해주고 그다음에 장기이식에 대해 설명을 해요. 반면 우리나라는 위로커녕 대뜸 장기이식부터 얘기하니 안 되는 거죠. 심리적인 걸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험한 현장을 많이 봤는데 연대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상처를 줘요.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며 상처를 주죠. 그럴 때는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 하며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아요. 자기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부부가 같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자가 되어줘요. 이런 일을 오래 하려면 개인적인 삶에도 충실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 오면 1시간 이상 일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짬이 나면 취미생활(공연을 보거나)을 즐기려 하고요. 그렇게 축적된 에너지로 나가서 또 일하고(웃음).

요즘 보면 우리나라는 사람 마음을 헤아려주는 걸 너무 등한시키고 제도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이런 걸 고려해주는 장치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사람은 나를 지지해주겠다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전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옳다', '너 잘했네' 이런 말

을 자주 해줘요.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계몽질을 하려들면 입을 닫게 돼요.

이명수 씨는 치유가 잘 되려면 많이 울고 감정을 잘 토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그게 바로 '엄마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

정혜신 박사님과 함께 설계하신 프로그램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에서 '엄마성'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네요.

맞아요. '엄마성'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허용해주고 지지해주는 존재잖아요. 자살하려는 사람들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죽지 않는다고 해요. 누구에게나 '엄마'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죠. 같이 손잡고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설계해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고 봐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위로하는 일을 넘어서, 사회적 상처를 넘어서는 공동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을공동체 밖에 없다고 봐요.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을공동체가 살아있다면, 내 이웃의 일이니 곧 내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초상나면 옆집서 와서 같이 음식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라 이웃들이 함께 하는 시간들로 견뎌오고 헤쳐갈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불씨가 마을공동체가 아닐까 싶어요. WT



인터뷰 1.  
제타랩

글  
윤영주 홍보팀

인터뷰 2.  
공감인

글  
이은주 홍보팀

# 기억으로

# 가기 살아



'마이스토리북'은 생애전환기에 접어든 시니어가 포토자서전을 제작하면서 지나는 생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4년 전, 어머니와 사별한 제타랩 김호정 대표는 유품을 정리하면서 헤어짐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점이 한(限)으로 남았다. 그것이 계기가 돼 남겨진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며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해 '마이스토리북'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이스토리북'은 사진을 매개체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사진과 기록물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세분화된 주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얘기를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다. 사진을 수집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들, 딸은 물론 손자, 손녀와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많아져 가족과의 관계도 끈끈해진다. 사진을 보며 행복했던 추억을 나누고 과거를 더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리되기도 한다.

"은퇴를 앞둔 시니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부모님이 고령이라 생전에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스토리북'을 제작하고 싶다고요. 사진을 선정하고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시니어로 부모님을 바라보게 되셨다고 해요. 부모님 인생에 자식들 이야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분 자신도 은퇴 이후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본인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진로를 결정하게 되셨어요. 지나는 삶을 돌아보니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더라는 거죠." 개인적인 아픔을 가진 이들도 '마이스토리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기도 한다. "어머니가 비구니가 되신 분이었는데, 자식들에게도 사실대로 알리지 못하고 평생을 가슴에 담아두고 사셨어요. 마음의 상처가 많으셨죠. '마이스토리북'에 어머니 사진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그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셨어요. 혼자 보는 것으로 생각하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결혼을 앞둔 딸이 앨범에서 사진을 빼가는 게 싫었던 아버지는 앨범을 지키기 위해 '마이스토리북'을 제작하게 됐다는 사연도 눈물겹다. "시집보내는 것도 서운한데 앨범 사이사이 행한 모습이 보기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모습을 성장일기로 만들어 결혼식 당일 선물로 주셨어요. 딸이 무척 감동해서 평평 울었고, 신부 화장을 다시 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앨범을 지킬 수 있었고요." 은퇴 전후의 시니어들은 신체적 쇠퇴를 비롯해 심리적으로 많은 상실감을 겪게 되는데, '마이스토리북'을 통해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많은 분이 저희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대나무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마디가 필요하듯,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드릴 뿐입니다." WT

# 누구 에게나

# 엄마가 필요하다



길을 걷다 돌 멍치에 걸려 넘어져 흠이 잔뜩 묻은 무릎에 피가 배어날 때, 엄마가 옆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 목놓아 엄마를 부르며 울 것이다. 그렇게 한바탕 설움을 털어내고 나면 다시 씩씩하게 앞을 보고 달릴 수 있을지 모른다. "엄마처럼 어떤 것이든 다 포용해주고 고개 끄덕여 주는 그런 사람이 지구 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서울 한 카페에서 만난 하효열 공감인 이사는 '엄마'와 '죽음'을 한 선에 놓으며 서울시 치유활동가 모임 공감인을 소개한다. 공감인은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다. "하지만 자살하는 대부분 사람에게는 그런 '엄마'가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자살예방사업을 벌여봤자 해마다 자살률이 늘는 이유지요. 이 프로그램은 정혜신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단장과 이명수 심리기획자가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자가 되는 치유 릴레이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엄마'가 돼 전문 상담가가 아울 수 없는 곳을 보살피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목이 메는 느낌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일반인이 치유자가 돼 또 다른 누군가의 치유자가 되는 것이다. 워낙 잘 짜인 프로그램이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훈련만 받으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나'편과 '우리'편이 있고, 치유활동가를 길러내는 심화 상담학교가 따로 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치유릴레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지돼 수많은 치유활동가를 길러내고 있다. 공감인은 이 프로그램 외에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70대 어르신들

위한 자서전 구술 사업도 하고 있다. 이들은 몸도 쇠약해졌고, 자식도 사람들도 다 떠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절망하는 자살 취약 계층이다. 자서전은 이들에게 '그래도 살아온 나날이 의미가 있었다'며 삶을 통합할 기회를 준다. 지나는 세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70대는 위태로운 나이이다. 최근에는 '세월호 트라우마 편'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아픔이 더 또렷해지고 분노와 불안 죄책감으로 살고 있는 일반인이 모여 서로 다독이며 출구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결국 사람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공감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치유받고 나눠주는 것이지요. 이해하기 쉽게 저는 이것을 치유 피라미드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다이아몬드 등급이 될 수 있다고 권유하죠. 하하" 치유활동가로 다이아몬드 등급이라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면 사회는 어떤 약재에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위로하는 일'로써 치유활동가라는 개념이 정말 맘에 듭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세상에 전문가와 정신과 약이 필요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대부분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버틸 수 있어요. 정말 내 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그거 하나로 위로를 받지요." 하효열 이사는 두 손을 들어 손과 손을 포갠다. 손 위에 손이 사뿐히 눈처럼 내려앉는다. 마음과 마음이 포개진 것처럼 따뜻하다. 그 손에는 세상 그 누구도 엄마 없이 꼭꼭 배어나는 울음을 참아내며 홀로 절룩절룩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WT

인터뷰 3. 토닥토닥협동조합

# 문턱을

# 상담의

# 낮추다

대구 반월당역에서 내려 지하상가를 걸어가다. 길을 잃을만한 지점에는 어김없이 토닥토닥협동조합 카페로 가는 이정표가 나와 낮선 고장으로 들어선 이방인의 불안을 달래주었다. 카페 유리 문을 열자, 바리스타가 웃으며 반긴다. 카페 한 편에는 작은 방이 두 개 있고, 색이 어두운 블라인드가 내려져있다. 그리고는 카페, 여느 카페와 다른 없는 그냥 카페이다.

“일반적인 카페지만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커피를 팔며 상담을 하기 때문에 구조상 상담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상담센터가 가진 여러 어려움을 카페라는 공간으로 해결하면서 상담의 문턱을 낮췄지요.”

이영희 토닥토닥협동조합 대표와 연두빛 벽지의 상담실에 마주보고 앉으니 카페와 분리되면서 주변이 고요해진다. 토닥토닥협동조합은 예방적 차원의 상담치료를 진행한다. 일상을 돌봐주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카페라는 휴식 공간을 상담실과 접목한 것은 그런 점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이다(물론 출세에 간단한 심리테스트를 진행하는 카페도 있었지만 전문 상담가와 전문 바리스타 그리고 상담실을 따로 두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정신병동에서 상담을 했었어요. 그때 놀라운 것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전 평소에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증상이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 아주 멀쩡하던 사람이 거식증과 망상 증상을 얻는 사례를 본 것이죠. 만약 초반에 상담을 진행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희 대표는 6개월 동안 5백명을 만나 상담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유는 두 가지 비싼 상담료와 ‘정신병’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한 회기 당 10~15만원 정도하는 상담료를 3만원으로 낮추고 상담실과 카페를 접목해 상담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오래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카페와 상담실을 접목하면 적은 상담료를 카페 수익으로 절충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토닥토닥협동조합 카페는 현재 대구 반월당점

위로가 필요한 사회,  
위로하는 일(work)이 필요한 사회

글  
이은주 홍보팀



과 영남대점 두 곳으로 운영 중이다. 전문 상담가 4명이 한달에 500여 명을 상담하고 있다. 전문 바리스타와 파티셰, 디자이너, 매니저, 행정 담당자가 있어서, 상담자는 상담에만 신경을 쓸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으로 카페를 시작한 것이다.

“직원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직원협동조합으로 전환했지요. 초반에 목돈 출자금을 내기 어려운 직원은 매달 월급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내는 방식을 통해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출자금이 몇 년 모이면 또 하나의 카페를 만들 수 있어요. 직원들은 빵을 만든다든가 디자인을 하는 등 자신의 특기를 접목해 상담 카페를 열고, 그곳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 목표로 일하다 보니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책임감 있게 일하게 되지요.”

상담센터는 높은 문턱과 비싼 상담료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많은 상담사들은 일할 곳이 부족하고 센터는 상담사의 처우를 낮추고, 상담료를 올려 운영비를 채우려 한다. 그러다보니 정작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더욱 상담사를 만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영희 대표는 상담사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출자금을 통해 카페를 늘리는 이유는 이런 그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 물론 적정 상담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이다.

“저희 슬로건은 ‘누구에게나 상담이 필요하다’입니다. 전 비교적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었죠.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삶을 성찰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꼭 이쁜 사람이 아니어도 진로·적성 상담, 취업 멘토링 상담, 부부상담, 자녀를 낳으면 자녀 상담까지 일생을 이어가며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잘 털어놓지 않는다는 대구 사람들이 그것도 40~50대 보수적인 아버지들이 토닥토닥협동조합에 와서 가장 많이 울고 간다고 한다. 이영희 대표의 말처럼 상담은 정말 ‘전부’에게 필요한 일이다. 특히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회에서는 말이다.

인터뷰 4. 라오스 푸딩캠프 재충전 캠프

# 다른 문화인과의

# 만남을 통한

# 힐링

라오스는 사람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선재 씨는 이곳에서 지친 마음을 쉬어가는 캠프를 연다. 그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일하며 아시아 여러 나라의 청년들과 캠프를 열고 자원활동에 참가하고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글로벌’한 직장에서 일을 했지만 항상 ‘지역’에 관심이 많았다. 세계의 청년들과 지역 마을에 머물며 함께 노동을 하면서 이웃, 우정, 문화, 발전, 생태, 평화를 얘기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라오스 푸딩캠프 재충전 캠프’를 마련했다. 캠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방비엥은 산과 물이 좋고, 무엇보다 사람이 좋은 곳입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캠프나 연수를 와서 즐겁게 지내고 갔습니다. 캠프를 하면서 참가자들이 저절로 재충전이 됐고, 그렇다면 재충전을 위한 캠프도 가능하겠단 싶었죠. 특히 민간단체(NG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재충전 캠프는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 대신 주제가 있다.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날, 강변으로 소풍가는 날, 마을에 놀러가는 날, 쉬면서 수다 떠는 날, 많이 마시는 날, 알아서 노는 날, 이런 식으로. 대부분 누군가를 만나는 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이 캠프에 참가한 사람, 함께 소풍가는 동네 아저씨들, 마을 청소년들, 길에서 만나는 라오 사람들이 캠프 참가자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합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나요? 결국 모든 것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단지 그 찾는 과정에 용기를 주고, 위로도 해 줄 누군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 2월에 있었던 재충전 캠프에는 총 7명이 참가했다. 한국, 라오스, 태국의 민간단체, 국제기구, 학교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왔다. 외국인도 참가를 원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 하느라 신경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받지 않았다. 캠프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이번 캠프는 ‘재충전을 시켜주는 일’이었기에 부담이 더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강변으로 소풍간 날 모두 사라졌다.

글  
이선재 캠프 운영자  
정리  
윤영주 홍보팀



“참가자 모두 소풍가는 어린이가 되어 먹을 것을 싸들고 작은 뚝뚝(라오스에서 택시처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타고 강으로 갔습니다. 생선구이에 맥주 한 잔씩 하고, 산등성이에 올라 멀리 마을과 들판을 내려다보며 노래도 부르고 들판에 핀 꽃을 구경하다 예쁜 꽃을 꺾어 머리에 꽂기도 하고요. 길고 멋진 역사를 하나씩 높이 들고 들판을 걷고 춤을 추고, 벼단 쌓인 곳에 올라가 소리 지르고 마구 구르고, 아무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 세상이 나밖에 없는 듯이.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술술 자기를 찾아가는구나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떠오르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재충전 캠프에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남이 평가하지 않으니 시간을 지키지 못할까, 남에게 피해를 끼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캠프가 끝나고 숨이 턱턱 막히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사는데 다시 어려워지겠지만 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삶이 있음을 알고, 그 삶의 즐거움도, 이 삶의 즐거움도 알아갈 것이다. 지금 발붙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재충전 캠프를 통해 배운 것이다.

휴식과 힐링을 해도 그 때만 좋을 뿐이고, 제자리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눈앞이 까마득해진다. 재충전 캠프는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캠프를 통해 ‘그래, 일단 내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한 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목표다. 사람에게 받은 어려움을 사람통해 풀고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돌아갈 힘을 얻기 위한 캠프인 것이다. 그것을 실현하기에 아름다운 경치와 푸근한 사람들이 있는 라오스 방비엥은 더할 나위 없이 적당한 곳이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워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기운을 내는 일에는 정성이 필요하고, 이것은 길고 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답게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과 그 속에서 힘든 이들이 사람 사는 냄새가 있는 라오스에서 지친 마음을 쉬어 갔으면 합니다.”

\* 라오스 방비엥에 있는 마을 이름이 '푸딩캠프'이다.

# 돌보는

# 이 틀 에

## 돌아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보호가 필요한 산모, 병원에 입원한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일터는 저임금 고강도의 시간제·단기 근로로 열악하기만 합니다. 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어느덧 4년이 흘러 수행기관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업성과를 공유하며 그들에게 돌봄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 일시

2014년 11월 5일

### 참석

- 이수영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자문)
- 안민희 (주)작은자리돌봄센터 센터장
- 송유정 (주)휴먼케어 대표
- 노승해 전주사회서비스센터 센터장
- 홍완식 (주)성동돌봄센터 센터장
- 노춘화 (주)행복한나눔 대표

**재단** 2014년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각 수행기관 대표를 한 자리에 모셨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사업성과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노승해 전주사회서비스센터 센터장(이하 노승해)** 돌봄분야 사회적기업의 생명은 정직함과 성실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 방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많은 돌봄 근로자를 발굴, 채용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홍보 요원을 두어 약 50명의 돌봄 근로자를 발굴하기도 했다. 그를 통한 서비스 수혜자가 188명이나 된다. 아시다시피 돌봄영역 바우처는 잉여금이 남는 사업이 아니다. 일은 많고 수익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돌봄센터들이 복합적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수혜 대상자가 단계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사바우처를 받던 이가 나중에 노인이 돼 장기요양을 받는 등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하다. 대상자 발굴과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홍완식 (주)성동돌봄센터 센터장(이하 홍완식)**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가 역점을 둔 건 얼마만큼 시장을 잘 펼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종사원의 고용을 얼마나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종사원의 교육 역량강화에 중점을 뒀다. 올해는 건강리더교육을 받은 근로자를 현장 중간관리자로 키워 낼 생각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금전적인 혜택도 있지만, 외부 행사를 할 때 공신력을 얻을 수 있어 좋았다. 어딘가에 우리를 소개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재단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 공신력을 얻는다. 덩달아 직원들의 자긍심도 높아졌다. 지원 금액이 적더라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노춘화 (주)행복한나눔 대표(이하 노춘화)** 우리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원이 올해 2월에 종료되면서 야생의 시장에 던져졌다. 우리 센터가 있는 양산이 시골이다 보니 시장 단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최저임금을 보전하면 운영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렵다. 그래도 열악한 상황에 직원들이 스스로 뚝치며 독려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원사업을 통해 급속수당이나 여름 휴가비 등을 제공할 수가 있어 다들 무척 좋아했다. 특히 이번 지원을 통해 대외활동으로 빗그림 공연 사업을 했는데, 우리 센터에서 일했던 사람이나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모두 참여했다. 지원사업 덕분에 공연을 여러곳에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안민희 (주)작은자리돌봄센터 대표(이하 안민희)** 우리 역시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좋았다. 지원 사업을 통해 적은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어서 큰 변화를 얻었다.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들은 2회 교육에 대부분 참여할 정도로 결속력이 높아졌고, 자존감과 소속감이 크게 향상되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급속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거나, 지역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겠다고 구상하고 있다.

**송유정 (주)휴먼케어 대표(이하 송유정)** 우리는 신규 근로자에 대



한 근로 장려금 지급 사업을 추진했다. 2011년부터 장기근속 수당을 진행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규입사자가 박탈감을 느꼈다. 신규입사자들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근로 시간이 안정적이지 않아 근로 몰입 요인이 적는데, 이번 사업으로 1인당 3만원 정도를 49~50명 정도가 받도록 했다.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매월 정례회의와 교육을 8시간씩 했는데, 신입사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됐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신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열악한 수가 정책에도 안정적인 근무 체계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사업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 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속성 위해

**재단** 지원사업이 의미가 있었다니 매우 뿌듯하고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원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이수영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이하 이수영)**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말하기 조심스럽다. 우선 수행단체들이 굉장히 적은 지원 금액으로 큰 효과를 냈다는 생각이 든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의 특성에 따른 고용 안정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녀가 있는 취약계층 여성이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일하려면 누군가가 자녀를 돌봐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 50~60대 근로자는 일하다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는 지원사업이라면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재단** 고용 안정에 대한 정의는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본인들이 시도해 본 경험들 속에서 발전시켜보면 좋겠다.

**홍완식** 고용안정의 끊임없는 화두는 종사원들의 능력 향상이다. 현재 고객들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어떤 곳은 가사가 필요하고, 어떤 곳은 놀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곳은 대소변 수발과 석션 등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데 모두가 한 번에 충족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종사원들이 전문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가가 중요하다.

**안민희** 우리는 그 점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무교육 등을 무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문 강사에게 1년에 한두 번 하반기에 교육을 받고 있다. 아까 이수영 박사의 말씀대로 근골격계 질환이 문제라서 작년년부터 한국간호협회에 의뢰해 당뇨, 고혈압, 혈당 체크 및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선물도 받을 수 있어서 반응이 좋다. 자기 몸에 대해서도 알게 돼, 당뇨, 혈압 질환을 모르고 있다가 검사 후에 발견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다. 교육을 통한 만족도는 높지만 경제적 급여가 항상 일정해서 문제다. 현실보다 30% 정도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단이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또 사업 설계상 15% 정도만 간접비를 쓸 수 있는 것은 부족한 것 같다.

**이수영** 예전에 만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나에게 '쉬고 싶다. 2박 3일 어디든 가보고 싶다. 하지만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근속수당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기간을 정해놓고 휴가라는 부분 보상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지금 당장 비용, 수당의 형태로 돈이 나가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의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춘화** 이번 기회를 통해 신입까지 다 같이 휴가비를 제공했는데 굉장히 좋아했다.

**노승해** 우리 센터에는 팀마다 상조회가 갖춰져 있다. 그들이 어디를 가고 싶다 하면 우리 센터가 봉고차에 기름 넣어서 운전해 주는 건 언제든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내가 본의 아니게 그들과 여행을 많이 다녔다(웃음). 그들 중에는 평생 여행이나, 영화 관람을 한 번도 못해 보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야유회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빼먹지 않고 간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큰 효과를 낸다.

**노춘화** 우리는 민들레금고라는 상조를 같이 하는 협동조합이 따로 있다. 본인들이 출자해서 대출해 주는 거다. 이러한 점이 소속감이나 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갖게 된다. 임금이 적더라도 이곳

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또 한 가지는 탄력근무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나이를 먹게 된다. 처음 시작할 때는 50대 초반이었는데, 5~6년 진행하고 나면 50대 후반, 60대이다. 나가면 다른 곳에 일할 데가 없지만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계속 고용을 보장해주는 일을 선호한다. 시간제로 일하면 몸도 덜 힘들고 일도 지속할 수 있어 좋은 것이다.

**재단** 고용 유지라는 것은 근무환경의 질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돌봄 사회적기업 영역이 녹록한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한 고민을 듣고 싶다.

**이수영**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운영비도 나오고 인건비 균형도 잡히면서 수익 구조가 나지만 소규모 기관들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해 경영, 운영의 노하우 등을 지원할 사회 서비스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거 같다. 그런 조직을 통해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성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공공에서 해야 할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도 바우처를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를 통해 나가는 서비스 품질관리를 담보할 압박이 필요하다.

**송유정** 사실 사회적기업을 이끌어 오면서 중간지원기관의 부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는 것 같다. 현장의 요구보다는 중간지원기관의 지원이 통제와 규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국가가 해야 할 사회서비스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는 그런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이 더 안정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된다.

**재단**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은 근로자의 고용 환경에 일시적인 변화를 주지만 만일 지원이 끊긴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것 같다. 그 온도차를 각 센터들이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된다.

**안민희**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규모 확대를 위해 고용안정화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분야를 여러 항목으로 정해서 활용한다면 충분히 매출액 상승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센터가 자신을 대접해 준다는 생각하면 의리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


**노승해** 우리는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는데 매년 수익이 남으면 해마다 '0'처리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반면 지원이 끝나도 지속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줬다 안 줬다

하면 기대했다 실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재단** 이 사업 절차나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이나 의견을 부탁한다.

**이수영** 재단에서는 지원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미안하던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가 왔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사업이 효과도 있고, 그래야 한국주택금융공사 측도 빛을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금액이 더 커지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걸 계기로 변화를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렇다면 돈 없이 하는 방안을 찾아서 연결해 주는 게 재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송유정** 송년회할 때 와서 영상도 찍고 인터뷰도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데이터가 정량화되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장 인터뷰를 하면서 종사자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그런 과정상 노력을 해주면 어떨지?

**재단** 오늘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고, 여러 의미 있는 지점들을 각자 생각하게 된 것 같다. 현장에 있는 대표와 종사자가 고생할텐데,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이수영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자문)



안민희  
(주)작은자리돌봄센터  
센터장



송유정  
(주)휴먼케어  
대표



노승해  
전주사회서비스센터  
센터장



홍완식  
(주)성동돌봄센터  
센터장



노춘화  
(주)행복한나눔  
대표





# 사회적기업 종사자를 보듬는

## 기부

글  
김선영 기획팀

사회적기업 대표자와 종사자에게 기업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업무를 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아마도 '시설·장비 확충 또는 개선' 그리고 '임직원 교육'을 꼽을 것입니다. 시설·장비 중에서도 PC와 같은 IT기기의 경우, 매일 사용하는 기본적인 장비이고 수명주기가 짧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지만, 사량이 낮고 느리긴 해도 작동은 된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이 대부분 사업자금지원 위주여서 기기와 장비 구입 지원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성SDS와 함께하는 (예비)사회적기업 IT기기 및 교육 지원과 프로보노 활동」은 재단이 삼성SDS와 파트너를 맺어 진행된 첫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이러한 형편을 잘 짚어낸 사업입니다.

삼성SDS의 프로보노 활동은 6명의 IT개발 전문 분야의 직원들이 1개월 동안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효순효식의 직원용 인트라넷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덕분에, 수기로 관리되던 업무를 홈페이지에서 관리할 수 있어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프로그램 일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활동대상(노인)에 대한 자료관리가 쉬워졌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IT기기 및 교육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삼성SDS 임직원들이 모금한 금액을 IT기기나 관련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기부의 개연성을 높인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 11월에 개시하여 올해 8월까지 진행하였는데,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기업 중 IT기기 및 교육 지원이 시급한 다섯 곳을 선정했습니다. (주)늘푸른자원, 더드림직업재활원, 민들레마을(주),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코소랑이 이들 기관입니다.

이들의 일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원 이후 이곳들은 더 좋은 직장이 되었을까요?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다섯 기관 중 한 곳인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직 야구경기장 근처에 위치한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들어선 순간, 30여 명의 장애인 작업자들이 힘찬 인사를 건넵니다. 우렁찬 목소리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일하는 장애인들의 즐거움과 자부심이 엿보입니다. 활기찬 인사가 기분 좋은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994년 설립된 부산 가정종합복지관 부설 보호작업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별 기관으로 독립한 이후에는 직업이 있는 삶을 꿈꾸는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보호작업장 운영, 직업적응훈련(작업활동프로그램), 전환교육, 네트워크 등의 사업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0여 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직업재활을 이어오는 것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뇌 병변 장애인으로 구성된 45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 25명은 근로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 직원과 같이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DM베스트'라는 상호로 외부와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DM 사업, 각종 인쇄물 디자인 및 인쇄, 제본 작업까지 인쇄물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장애인 작업자들이 이곳에서 하는 업무는 특성상 DM 작업이나 인쇄 보조 등 단순한 잡무가 대부분입니다.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기계가 많으므로 기계 근처에서 작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신 봉투 안에 책을 하나씩 넣거나, 양면테



1-2.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작업 모습  
3. 지원사업을 통해 구입한 택배송장기


이프나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합니다. 비장애인의 관점에서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일 수 있지만, 이곳의 작업자들에게는 정직하게 일을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직장이자 소중한 일터입니다.

시설에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매월 소방교육, 인성교육, 성교육을 진행하여 이용자 업무생활의 힘든 점을 최소화하며, 작업자들의 부모교육도 진행합니다. 부모교육은 분기마다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기도 하는 대화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한 영화 관람이나 외식도 시설에서 종종 함께하는 일입니다. 작년부터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환원하고자 환경정화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느 기업 못지않은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부산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이처럼 단순한 일거리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용자들의 면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가야 할 길은 멀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작업인의 월급은 40만 원이 채 되지 않고, 정규직 직원인 25명을 제외하고는 아직 정규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필수적이었지요. 특히 가장 절실했던 부분은 노후한 컴퓨터를 대체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설 선임 직원훈련교사인 백정은 씨는 “저희 컴퓨터가 정말 느렸거든요, 용량도 적고요. 힘들게 디자인한 데이터를 인쇄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인쇄 누르고 한참 있다 가보면 이제 1장 넘어갔다고 하시고(웃음). 이번에 채용되신 디자이너 분도 컴퓨터를 보시고 엄청나게 놀라셨어요.”라고 시설물 교체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나섰습니다. 작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최신 데스크톱과 택배 송장 프린터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인쇄 데이터가 넘어가는 성능을 자랑하던(?) PC 대신 새로운 데스크톱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새로운 데스크톱 덕분에 인쇄물의 작업속도와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데스크톱 후원을 받으면서 디자인 담당자를 한 명 더 채용하게 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필요한 교육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권에 관한 감수성을 높이는 강의, 생활 편의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스마트폰에 관한 강의뿐만 아니라 청렴교육, 윤리경영에 관한 교육 등 평소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분야들을 직접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장애인 직원으로 인권 교육을 마친 선생님들은 이후 장애인 작업자들과의 사소한 소통에서도 ‘혹시 이게 인권 침해일까?’ 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백정은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부산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보채거나 재촉하지 않고, 서로 도와가며 꾸준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이들의 더 멋진 미래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 삼성 SDS의 (예비)사회적기업 IT 기기 및 교육 지원에 힘입어, 부산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조금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 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멀리 가기 위한 소중한 수단입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함께 가는 걸음을 응원하기 위한 후속 지원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 희망을 담은 씨앗 한 톨의 힘

글  
이은주 홍보팀



1-3.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달서구래인보우공연단>과 <월드맘>의 활동 모습  
2.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발족식 장면



봄이 되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민들레는 잡초처럼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자란다. 봄이 절정이면 노란 꽃봉오리에 숨털이 방실방실 달린 씨앗이 발아하고, 혹 불면 파란 하늘 위로 흘러간다. 아름다운 민들레 흩날리듯 희망씨앗을 전파하는 기업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책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2년에는 희망씨앗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다문화 탈북가정 등 신(新)구성원의 사회적 지원' '글로벌 사회공헌'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매년 당기순이익에 따라 사회공헌 예산을 책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30대 계열 대기업 이자수의 일부와 노사 간 공감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인건비 절감분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사회공헌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사회공헌활동 예산을 2012년 40억 9,000만원에서 2014년 65억으로 해마다 20% 가까이 증액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사회공헌 역사는 2003년 수재민 성금, 국군장병 위문금 등 '작은 나눔, 큰 기쁨'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부터는 1사1촌, 1사1산 등 직접적인 결연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농번기 일손 돕기, 문화재 보호, 탈북청소년 그룹홈, 환경개선 등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갔다. 2009년에는 프로보노 봉사단을 발족하고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소외 계층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또한 함께일하는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1사1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유)정선재활용센터에 5톤 카고트럭을 지원하기도 했다.




## 한 술갈씩의 희망을 담아, 십시일반

이런 현장 맞춤형 지원을 주로 하던 한국수출입은행이 재단과 함께 좀 더 큰 날개를 달고 멀리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과 재단은 2013년부터 협약을 맺고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자금 지원, 전문 프로보노 연계사업을 진행하며 지원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SE 희망씨앗 전파사업」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향상에 힘쓰는 사회적기업,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개도국의 발전과 자립을 돕는 공정무역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의 비빌 언덕이 되고 있다. 또한 위기관리, 마케팅, 법률, 외국어, 통번역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프로보노를 연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지원사업에 선정됐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들넥에 박상선 대표는 "설비지원으로 기존의 가내수공업 생산방식을 탈피해 대량 생산 및 위생적인 생산이 가능해졌다. 희망씨앗이 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변화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호부조 형태의 공제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십시일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탄생한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은 상호부조 정신에 따라 가입 사회적기업이 일정 기간 부금을 납부하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때 대출을 통해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금사업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 공제기금 사업에 1억원을 시드머니로 후원해 그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신덕용 사회공헌단장은 "사회공헌은 기업의 책무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의 주춧돌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는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여러 명의 한 술갈이 모여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채우듯이, 한국수출입은행이 뿌린 작은 희망씨앗들이 한여름의 튼실한 과실로 자라가고 있다. 재단과 한국수출입은행의 협력이 더 많은 밥공기를 짹짹 채울 수 있기를 바라본다. 

# 장애 비장애의 벽을 넘어

# 사람 속에서 살아가다

글 이은주 홍보팀

사는 게 뭘까, 구질구질할 정도로 물음이 가시지 않는 날이 있다. 시계추처럼 반복되는 일에서 '의미'라는 놈을 찾지 못할 때, 그 물음은 쉬파리 꿀듯 성가시게 우리를 따라다닌다.

가을이 허리춤에 다다른 어느 맑은 날, 포항 영일만에서 두 사회혁신가를 만났다. '유쾌한 긍정맨'과 '사업 잘하는 교회 오빠'는 삶은 당연하다는 듯이 '달걀이다'라고 말한다. 물론, 그들의 입에서 달걀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아니다. 다만, 삶이란 것 '삶은 달걀'처럼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냐며 짧지만 명쾌한 진리를 전했다. 박원진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와 임정택 향기내는사람들 대표이사의 만남은 그래서인지 갓 삶은 달걀처럼 맛있고 든든하고 따뜻했다. 이날 만남에는 히즈빈스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김흥구 씨와 박 대표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내 강기영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경영기획본부장이 소금처럼 함께했다 (삶은 달걀에 소금이 빠질 수 없지 않은가). 네 사람의 수다는 자막플랫폼 '쉐어타이핑'을 통해 장애·비장애의 벽을 넘어 평화롭게 이어졌다. 그리고 히즈빈스의 정신장애인 바리스타의 드립 커피는 이야기꽃에 향기로운 풍미까지 더했다. 한마디로 더할 나위 없는 만남이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회적혁신가들의 진솔한 스토리, 동고동락(同苦同樂)에 담았다.

그것도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포럼이나 강연을 들을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야 해요. 근데 전 뒷자리에 앉고 싶거든요. 볼이 끼지면 아무것도 못 들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 입술이 글자로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상상으로 출발한 거지요. 그러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걸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자막을 보면 정말 편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걸로 소셜벤처경연대회에서 3등을 하면서, 특수학교 교사생활을 접고 아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지요.

**임정택** 그게 쉐어타이핑인 거지요? 오늘 청각장애인이 두 분 계시니 쉐어타이핑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특수교사셨다면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도전하기 쉽지는 않으셨을 거 같아요.

**강기영 경영기획본부장(이하 강기영)** 실은 남편이 경연대회 나간다고 했을 때 기가 찰어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 수가 없어서 가출까지 감행했지요. 하지만 계속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사람의 삶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교사할 때보다 더 눈이 반짝 반짝거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걸 봤거든요. 결국, H-온드림(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대회) 대상까지 받게 됐죠. 물론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지만(웃음).

**임정택** 대상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박원진** 감사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된 거지요. 참, 대표님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시죠? 사회혁신기업이라는 말을 쓰시던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임정택** 사회혁신기업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처음 이 일을 생각했을 때 사회적기업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났는데 지원을 받을 때는 괜찮는데 나중에 지원이 끊기고 나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걱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쩌지? 이분들은 평생 일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바위에 계란치기였어요. 처음 3~4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박원진** 씨드머니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임정택** 처음 사업계획서를 적었을 때 1억 600만원이 필요했는데 통장에는 25만원밖에 없었어요. 모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요. 개인적으로 주변에 돈이 있는 사람도 없어서 파트너를 찾아야겠다고 주위를 돌아봤죠. 포항에서 제일 돈 많은 곳을 찾자! 포스코가 보이더라고요 (웃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전화 걸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당연히 대학생에 사업 경험도 없는 저에게 큰돈을 줄 리가 없었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전국을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계속 포스코 담당자를 만나 설득했죠. 마지막에 38장짜리 사업계획서를 들고 갔더니 담당자가 훑어보면서 '그럼 이 돈 주면 돼요?'라고 하더라고요(웃음). 그 씨드머니를 가지고 바리스타 선생님, 장애인 전문 교수님 등 현장을 쫓아다니며 배웠죠.

## 미국정신재활협회에 소개된 히즈빈스

**박원진** 와, 아주 좋네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장애인분이 바리스타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임정택** 지금은 7호점 카페까지 냈고, 정신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40명이 일하고 있어요. 새터민 두 분도 같이 일하고 계시고요.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은 몇 분이세요?

**박원진** 저희는 3명이예요. 8월에 채용된 분도 청각장애인이고요. 원래 덴마크에서 의사소통에 관한 전공을 하셨는데 자신의 재능을 좋은 곳에 발휘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랑 일하게 됐어요. 임 대표님이 정신장애인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장애인과 새터민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있듯이 저희도 장애 불문하고 고용을 늘릴 계획이에요. 그런데 정신장애인이 바리스타로 있는 카페라고 하면 뭔가 의사소통이나 일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임정택 대표(이하 임정택)** 포항 히즈빈스 카페까지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진 대표(이하 박원진)** 서울 강연하셨을 때 임 대표님의 한번 내려오라는 말을 덤석 물고, 이렇게 엮치 불고 내려오게 됐습니다(웃음). 경상도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서울 분이신가요?

**임정택** 네 저는 서울이 본가이고, 한동대에서 공부하고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포항에 머물게 됐습니다.

**박원진** 포항에서 장애인과 새터민을 고용해 카페와 떡 공장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신 건지 궁금해요.

**임정택** 제가 대학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배워서 남 주자, 세상을 변화시키자'입니다. 제 비전 역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는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가장 소외된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러다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갔죠. 몇 개월 꾸준히 나가면서 그곳 사람들과 친한 형, 누나처럼 됐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는데 세상은 왜 그걸 보지 못하지? 왜 우리 형은 안 되나? 뭘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자. 오기로 시작하게 되었죠.

**박원진** 오기라니 저와 비슷한 이유로 시작하셨네요. 저 역시 청각장애인의 억울함(웃음)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도 보시다시피 청각장애가 있어요. 보청기를 꺼서 조금은 들리지만 대부분 말이 뭉개져서 들리고 입술 모양을 보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지만 멀리 있으면

**박원진**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일명: 유쾌한 긍정맨)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교사 출신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해 휴대폰 앱으로 자막을 송출하는 '쉐어타이핑'을 개발했다.

**임정택**  
향기내는사람들 대표이사  
(일명: 사업 잘하는 교회 오빠)

정신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해 포항 지역에 7개의 카페(히즈빈스)를 열었다. 현재 새터민과 청각장애인 등을 고용해 떡 제작·유통 사업도 하고 있다.



**동고동락**

**임정택** 히즈빈스에는 매장마다 매니저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애인이지요. 그분이 하는 일이 엄청나요. 실시간으로 교육하고, 바리스타를 상대 파악하고, 운영 관리하고 손님 접대까지 하지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박원진** 어떤 기사를 보니 미국 메릴랜드주립대 연구진들이 히즈빈스를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정신재활협회는 소식지에 히즈빈스 직원의 변화 사례를 소개할 정도로 외국에서도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임정택** 저도 미국에서 오시고 나서야 정신장애인들이 5년 넘게 일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미국처럼 사회복지 시스템이 좋은 곳에서도 정신장애인이 일하는 평균 지속기간이 3개월 정도래요. 저희처럼 3년, 4년, 5년 넘게 일하는 사례는 굉장한 거죠.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이 미국 학자들에게 가장 큰 과제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개의 핵심역량이 나왔어요.

**박원진** 뭔지 궁금해요!

**임정택** 첫 번째가 다각적 지지시스템이에요. 저희는 장애인과 새터민을 둘러싸고 매니저, 장애 관련 교수, 선후배, 사회복지사, 담당 의사 등 최소 8명의 지지자가 배치돼 있어서 쉽게 그만둘 수 없어요(웃음). 만약 힘들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달려붙어서 지지를 해주는 시스템이죠. 두 번째는 단계별 교육 시스템이에요. 자신의 전문 기술을 키울 수 있게 7단계로 교육을 하고 단계별로 시험을 봐서 통과를 시켜요. 최종적으로 현장 실습 나가고 마지막에 시험을 보지요. 일을 시작하면 다시 교육이 시작돼요. 1년에 2번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전문운영 시스템이에요. 카페 운영하면 처음에는 사장이랑 직원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일부러 임원을 뽑았어요. 디자인, 교육, 메뉴, 마케팅 등 이들이 실속 있게 일을 해서 내실을 다질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 네트워크형 운영 모델이에요. 저희는 지자체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공간은 시에서 제공한 거예요. 대신 시에서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해주지요. 대학과도 연결돼 있어요. 교수와 학생들이 재능교육을 하면 학점과 인턴십을 주죠. 사회복지 기관과의 연결고리도 있어요. 파트너 기관이 돼서 각 사회복지사와 실시간 상담과 사례관리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곳에 채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역전문가 단체인 소셜컨설팅그룹과도 연결돼 있지요. 이런 네트워크형 운영 모델 덕분에 포항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은 사회혁신운동이에요. 커피가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거죠. 정책제안을 하거나 논문대회에 나가서 수상하기도 했지요. 앞으로 사회혁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에요.

**강기영** 정말 좋네요! 필요와 원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 싶어하지만 큰데 그것은 끝이 없는 거 같아요. 하지만 필요는 꼭 채워줘야 하는데 히즈빈스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기업인 거 같아요.

**필요를 채워주는 기업**

**박원진** 에이유디도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채

**박원진**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대표 & 임정택 향기내는사람들 대표이사

워주고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을 배웠어요. 배우면서 크는 거니까. 정말 이런 기업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흥구 씨 웨어타이핑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사용 소감 좀 알려주세요.

**김흥구** 히즈빈스 청각장애인 바리스타(이하 김흥구) 이렇게 보는 게 신기하고 좋아요. 저는 아예 못 듣는 건 아니지만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정리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못 알아들으면 다시 점검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음성인식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아요(웃음).

**박원진** 아직은 쳐주는 사람이 가장 빠르고 정확도가 앞서요. 전문속기사가 치면 음성인식을 못 따라가지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유디에서 음성인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에이유디에서 FM을 통한 음성인식 관련 특허를 하나 만들었어요. 물론 더 개발해야 해요. 흥구 씨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좋을 거 같아요. 임 대표님도 후원자 조합원이나 자원봉사자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임정택** 좋지요(웃음).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에 조합원이 24명이 있던데 다 청각장애인인가요?

**박원진** 아니에요. 다섯 분류가 있어요.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모여서 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죠. 우선 청각장애인이 있고요. 생산자 즉, 공익에플리케이션이나 보조기구 등을 발명하는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화 오면 진동으로 알려주는 앱을 만들었는데 이게 청각장애인에게는 필요한데 시장성이 없어요. 그럼 에이유디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개발자들은 공익을 위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무국 직원과 후원자가 있어요. 후원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나 교육이 있으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후원하지요. 가장 큰 핵심은 자원봉사자 그룹이에요. 이들은 속기사든 일반인이든 우선 듣고 치는 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외에 공부방을 운영한다든가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요.

**돌덩이가 아닌 ‘보물’**

**박원진** 요즘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정신장애인들과 일한다는 것은 어때요?

**임정택** 정신장애의 대부분은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조울증이에요. 예전 같으면 정신병 환자라고 취급당할 가능성이 컸죠. 하지만 이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예요. 도파민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지요. 감기 걸렸을 때 해열제 먹으면 열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성인 중 16%가 정신유병률을 가지고 있을 만큼 많은 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잘 안 보이죠.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와서 사회 복귀를 해야 하는데 편견이 있다 보니 많이 힘들죠. 얼마 전에 증명한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를 보면 정신분열증인 주인공이 일상생활도 하고 소설도 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치유도 해나가잖아요. 이분들도 같아요. 사랑을 주면 치료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10대 초나 20대 말에 가정 문제 등에 의해 상처를 받아서 정신적 문제를 가지게 된 거예요. 100%

함께 일하는 사회

**그들의 키워드 ‘지지와 융합’**

**박원진** 오늘 우리 만남은 인문학에 IT기술까지 융합된 거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융합이에요. 웨어타이핑이라는 IT기술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임정택** 요즘 가장 추세가 융합이에요.

**박원진** 사회적기업도 융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거 같아요.

**임정택** 사회적기업 같은 좋은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지지가 필요한 거 같아요. 결국, 사람이나 기업이나 누군가의 꾸준한 지지가 필요한 거 같아요. 오늘 우리 두 회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배웠어요.

**박원진** 맞아요. 나중에 청각장애인들로만 구성된 카페도 만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만든다면 다양한 주문 방법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거 같고, 여러 IT기술을 통해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을 위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정택** 저에게 가장 핵심은 이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거예요. 지속해서 실직의 위험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하면서요. 결국, 그게 회사를 키우는 동력이 되는 거 같아요. 회사가 커질수록 사업 확장에 대한 유혹이 와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2년 전부터 그런 제안들을 다 끊었어요. 왜냐면 장애인과 새터민이 지금은 일하고 있지만 10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표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기업이에요. 사업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면 일부러 키우지 않아도 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와 함께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해요. 결국 저희 두 회사의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박원진** 좋은 말씀이세요. 앞으로 우리 두 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모색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후천적 질환인 거죠. 그러다 친구나 가족들 다 떠나가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가서나 무시당하고 일도 못 구하지요.

**박원진** 같이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임정택** 출근하시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약을 드시고 오셨는지와 점심때 약을 먹이는 거예요. 약만 잘 챙겨 드시면 별문제 없이 일하세요.

**박원진** 저도 지적장애학교에 있었는데 지적장애와 정신병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정신과 약을 먹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은 잘 먹었는지 체크하고 점심때도 약을 먹이는 것이 교사들의 주된 일이었어요. 전 드라마를 보면서 오히려 정신병이 저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임정택**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물론 평생 약을 먹어야 하지만 환청이나 환시가 가짜인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장애를 가진 분들은 숨겨진 보물이예요. 그 안에 내재한 능력이 커요. 사람들이 그냥 돌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면 보물이 되죠. 우리 바리스타 선생님 중 한 분은 곧 시집도 나올 거예요. 4년 이상 일하면서 그동안 쓰신 시가 70편 이상 돼요.

**김흥구** 예전에는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나오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어요.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어요. 보통 사람들도 정신장애가 환자라는 개념보다는 마음이 좀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 치료를 받는 것도 괜찮다고 주변에 권유할 수 있게 됐어요. 제 친구도 공황장애가 있어서 능력이 있지만 그걸 스스로 낮추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듬어 주니 세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구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변화를 보인다는 게 고마워요.

**박원진** 미디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장애인이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없고 결정되는 것 같아요. 미디어가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고 반대로 개선할 수도 있어요. 미디어는 정확해야 해요.

**일동** 맞아요.

1. 웨어타이핑을 통해 대화가 이뤄지는 모습
2. 오징어집이 배를 볼 수 있는 동빈나무점에서 단체사진



# 달인의 미소를 가진

## 청년

글·사진  
신재철 자유기고가

### 신재철

철인 3종 경기를 즐기는 유유자적 노총각,  
운동의 부작용으로 힘이 점점 세지는 것을  
걱정하는 '아이언맨'



㈜두레마을 본사에서 첫 대면한 정지수 대리는 웃는 눈에서 귀여움이 묻어나는 옛된 얼굴의 평범한 청년이었다. 운동을 좋아하고, 여자친구 있느냐는 질문에 얼굴을 붉히며 “예... 있어요”라며 수줍어하는 그런 평범한 청년. 그는 20살 어린 나이에 시작한 세차 아르바이트에서 미래를 찾아냈고, 24살이 된 지금 ㈜두레마을 물류사업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지수 대리는 우연한 기회에 세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의 모습이 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20살, 7월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2년 조금 넘게 일하며 세차작업, 실내클리닝, 광택, 코팅 작업을 했어요. 그 이후에 매장에서 1년 반 정도 일하다가 본사 정직원이 됐어요. 지금은 교육과 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가맹점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고 세차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두레마을의 교육은 한 달에 총 20일 정도 진행된다. 물을 적게 사용하는 두레마을의 고유한 세차 기술인 ‘회오리세차’ 관련 교육과 광택, 코팅, 실내클리닝과 같은 자동차 세차 관련 전 분야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정지수 대리는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을 맡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교육을 할 때는 한 대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하도록 조언을 해요. 세차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자연광과 인공광은 얼룩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실내에서 세차를 할 때와 실외에서 세차를 할 때 보이는 얼룩이 다른 거죠. 세차 일을 처음 하는 분들이 이 특성을 몰라서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극세사 타월로 각 부분을 꼼꼼하게 닦아내야 해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꼼꼼한 성격이 드러난다. 그의 이런 성격이 바탕이 되어 지금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두레마을에서는 일반적인 세차방법이 아닌 특별한 세차방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100ml 정도의 물로 차 한 대를 세차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차 공정은 초벌작업과 본 작업으로 이뤄져요. 초벌작업은 일반 세차 시에 처음에 물로 자동차 표면의 오물 등을 쓸어내리는 작업인데 두레마을에서는 초음파 에어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차 한대를 세차 하는데 물 반 컵 정도가 소요되는 획기적인 세차 기법이지요.”

초음파 에어건은 액체를 미세입자로 분사하는 기구로 반도체 청소용으로 쓰이던 것이다. 그 기술을 세차 방식에 접목해 (주)두레마을의 고유한 세차 기술인 ‘회오리 에어 세차법’이 탄생했다. 폐수는 전혀 나오지 않는 친환경 세차로 2009년 특허 출원을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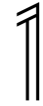
두레마을의 또하나의 특징은 사회적 프랜차이즈 모델을 만든 것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두레마을 가맹점 29곳 중 20곳이 자활공동체나 장애인 단체 등 비영리단체이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2013, 2014년 2번 선정) 선정돼 이동형 세차박스를 개발했다. 상상수레 세차 전동 카트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전 이런 세차 업을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고 싶어요. 나중에는 제 사업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지금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두레마을의 가맹점주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웃음).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각 파트 업무를 두루두루 경험해보고 싶어요.”

정지수 대리는 운동 좋아하고, 여자 친구 이야기에 얼굴 붉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젊은이였다.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뜨거웠다.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는 정지수 대리는 나이는 어리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당당한 모습이 달인이라 부르기엔 손색이 없었다.

# Don't Worry, Bee Happy!

글  
윤영주 홍보팀



1. 여기는 어디? 바로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에 위치한 노들텃밭입니다. 꿀벌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도시에서 꿀벌을 기르고 있는 어반비즈서울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노들텃밭 외에도 은평구 갈현텃밭, 서울시청 남산별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성미산 버뮤다 삼각텃밭, 서대문구청 옥상, 서울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서울에만 8개의 도심양봉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양봉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오늘은 노들텃밭에서 도시양봉가 되기 6기 3번째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꿀벌이 좋아하는 밀원식물과 사양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계절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꿀벌은 아카시아, 밤꽃, 메밀 같은 식물을 좋아합니다. 작은 꽃이 밀집되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는 밀원식물(벌이 꿀을 빨아 오는 식물)이 600여 종 있는데, 그 중 으뜸은 헛개나무입니다. 헛개나무 꿀은 마누카 꿀보다 항산화 효과가 높지만 나무 가격이 비싸 밀원식물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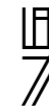
3. 야외로 나가 가을에는 어떤 밀원식물이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사진도 찍어보았습니다. 텃밭에 있는 바질에 앉은 꿀벌이 열심히 수분 활동 중입니다.

4. 노들텃밭 한 편에 마련된 양봉장으로 이동해 벌통을 직접 들여다보며 내검활동을 합니다. 벌통 근처에 가기 전에 벌에 쏘이지 않도록 방충복 착용을 필수입니다. 벌통에 훈증기를 살포하면 벌들의 교신을 막아 공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벌통 안에는 꿀벌이 집을 만들고 열심히 꿀을 저장하는 소비(벌집)가 여러 개 있는데, 꿀벌이 여러 개의 소비에 잘 분산되어 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 둡니다. 벌통 안에 소비가 가지런히 꽂혀 있는 모양이 서류보관함 같습니다.

5. 소비에 꿀이 충분히 모이면 채밀을 하게 됩니다. 꿀벌이 꽃에서 채집한 꿀은 수분 함량이 높아 열을 가해 수분을 날리게 되는데, 단시간에 판매용 꿀을 완성할 수 있지만 꿀에 포함된 좋은 성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반비즈서울은 열을 가하지 않고 약 45일 정도 벌통에서 자연 숙성시킨 꿀을 생산하고 있어 생산량은 많지 않지만 꿀이 가진 좋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품질이 우수합니다.

6.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서울도시농업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자연생태에 대한 관심, 아이들 현장체험, 귀농, 부업 등 다양한 이유로 도시양봉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이 어반비즈서울 부스를 찾아주셨습니다.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도시양봉가 되기 교육도 안내해드리며 어반비즈서울을 한 분 한 분께 소개했습니다. 소비 샘플을 보여드리며 꿀벌이 어떻게 집을 짓고 꿀을 저장하는지도 설명 드렸습니다.


7. 어반비즈서울의 또 다른 양봉장이 있는 명동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양봉장을 다니며 내검활동을 합니다. 꿀벌들의 상태와 꿀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소비에 모인 꿀의 양이 제법 되어 보였는데, 채집된 꿀은 모두 채밀하지 않고 꿀벌들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먹이로 일부 남겨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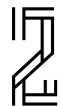


8. 하나의 벌통에는 한 마리의 여왕벌이 있는데, 운이 좋게도 여왕벌을 대면하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옥상정원에 있는 배롱나무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상주하는 바리스타에게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벌통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도시에서 벌을 키운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첫 번째 우려가 '쏘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이곳에 벌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근처에 벌통이 있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10. 어반비즈서울을 이끌고 있는 박진 대표는 도시양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기 위한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그 밖에도 허니비어, 밀랍초를 비롯해 꿀벌을 모티브로 한 문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안에 멸종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류 식량의 1/3은 곤충의 수분 활동을 통해 생산되며, 수분 활동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곤충이 바로 꿀벌입니다. 하지만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움직임에 불과하지만 어반비즈서울의 활동을 통해 꿀벌과 공존하는 생태계의 회복을 꿈꿉니다. 



#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 보금자리를 찾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 남짓 달려 도착한 원주,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걷고 또 걸어 행사장에 도착하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 습니다. 바쁜 점심을 피해 도착한 행사장, 주방에서는 점심 장사 후 남은 설거지와 오후부터 시작될 후원밥집에서 팔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비교적 한가해진 홀에서는 기념식 행사를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들이, 행사장 입구에서는 나눔의집 티셔츠와 곳곳에서 후원받은 각종 물품을 판매 하는 부스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성공회원주나눔의집은 1999년 6월 13일 설립되어, 현재 햇살지 역아동센터, 때때청소년진로자립센터, 햇살누리요셉의집(그룹홈), 성공회 원주노인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공회원주나눔 의집 설립 15주년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준비되었는데, 이번 후원밥집의 수익금은 청소년진로자립지원센터의 '상상카페' 설립 기금으로 쓰입니다. 상상카페에서는 지역의 빈곤·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 돌봄, 제과제 빵, 바리스타 교육 등을 통한 자립 진로 교육, 취업 및 창업 연계 등을 진 행하게 됩니다. 재단은 성공회원주나눔의집이 청소년자립커뮤니티와 지 역청소년네트워크 발족을 위해 진행한 '나섬(I-sum) 프로젝트'를 2013년도 라이트어랩프 자립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기부금이 이렇게 쓰입니다!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설립 15주년 기념행사

글 김규성 전략팀

빈곤 아동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찾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의 장으로 발전해나가는 성공회원주나눔의집이 작년 라 이트어랩프 단년사업 지원대상 선정에 이어 올해는 다년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설립 15주년 기념식을 통해 성공회원주나눔의집을 소개합니다.



원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나눔의집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초 대하여 진행된 15주년 기념식은 나눔의집이 지난 15년 동안 지역에서 어 떻게 활동해왔는지 엿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의 축하와 함께 가족적이 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때때의 청소년활동가 학생 들이 준비한 순서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독 립을 앞둔 네 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종이에 적 어온 각자의 꿈을 발표했고, 후원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 때때에서 배운 우쿨렐레, 젬베 실력을 뽐내며 나눔의집 15년을 자축하는 노래를 불러 많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많이 활성화되 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안에서 성공회원주나눔의집은 사랑과 나눔의 생 명공동체로서 15년 동안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활동해왔으며, 아이들의 진로와 자립, 미래를 응원하는 원주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성공회원주나눔의집이 상상카페 설립을 통해 만들어갈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만들어 갈 청소년들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회



OO고등학교 3학년 심철수(가명)

제가 이곳 성공회원주나눔의집에 처음 온 것은 7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년이 흘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 황하고 있을 때 나눔의집은 제가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진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과 후배들을 보면 대견스럽고 든든합니다. 어른들은 저희를 두고 희 망이라고 매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저희를 응원해주는 어른 들이 희망입니다. 덕분에 저희는 나눔의집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카페에서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진로모듬직업인 강 의를 할 날을 기다립니다.


OO고등학교 3학년 김유나(가명)

저는 때때청소년진로자립센터의 활동가인 김유나입니다. 저희 성공회원주나눔의집의 15번째 생일과 후원의밤 행사는 졸업반을 맞이 한 세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상상카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도 오늘 이 자리가 설레고 떨립니다.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하지만 혼자 가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상상카페를 만드는 데 참여해주세요. 후원해주 셔서 감사합니다.

OO고등학교 3학년 정민지(가명)

안녕하세요. 청소년 활동가 정민지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때때청소년자립센터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여기 저기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아직 명 확한 꿈도 목표도 없어요. 하지만 꿈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기죽지 않겠 습니다. 상상카페에서 제 길을 계속 찾아가면 언젠가는 분명 멋진 어른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 께 감사드립니다.

OO고등학교 3학년 박윤지(가명)

저는 때때청소년진로자립센터에 다니고 있는 박윤지입니다. 초 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곳의 햇살공부방을 다녔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 났어요. 제 꿈은 댄스강사입니다. 저는 춤을 잘 추지는 못해요. 하지만 춤 추는 사람들을 보면 즐겁습니다. 또 춤을 추면서 맘을 흘리는 게 뿌듯합니 다. 저는 스트릿댄스와 재즈댄스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댄스 선생님을 만나 재즈강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격증을 따다면 상상카페에서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쳐주고 싶고 함께 춤 연습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상상카페는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곳입니다. 



# 기부자들의 마음이 모여 꿈이 현실로



- 1-3. 수공예품을 만드는 모습
- 2. 완성된 수공예품 착용 모습

프렌즈인터내셔널은 2013년부터 재단과 함께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입니다. 홈 기반 생산 프로그램 (Home-based Production)을 통해 프놈펜 도시의 소외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주로 여성)에게 수공예 제품을 만드는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된 제품을 인터내셔널프렌즈엔스터프 (International Friends N Stuff) 아울렛에서 판매해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가난하고 소외된 가정의 아이들 중 많은 수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들의 부모는 계속 돌봐야 할 어린아이가 있고, 교육과 기술이 부족합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도 많아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프렌즈인터내셔널은 취업이 어려운 이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가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프렌즈인터내셔널은 지원받는 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으로 생산한 가방, 수공예품, 티셔츠 등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공예품이 팔릴수록 빈곤 가정은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재단과 마케팅 및 판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시장 조사, 프놈펜 내 매장 인테리어 개선, 온라인 가게 오픈 등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판매는 캄보디아 물류산업이 초기 개발 단계라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재단의 도움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재단과 프렌즈인터내셔널의 인연은 2012년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에 프렌즈인터내셔널의 직원 두 명이 초대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프놈펜에 직접 방문해 문제 해결에 대해 같이 고민하며 프렌즈인터내셔널의 도전의식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사업으로 협약한 3년이 이제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프렌즈인터내셔널은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홈기반 생산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직접·간접 수혜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매장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재고 감소를 통한 매장 관리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현재는 정규직 디자이너도 고용해 목표 소비자 군에 보다 적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프렌즈인터내셔널은 판매 직원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이러한 모듈을 갱신하며 영업 인력을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홈기반 생산 가정의 소득이 소폭 증대되었습니다.

프렌즈인터내셔널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미얀마 그리고 필리핀 등에 넓은 네트워크와 협업 체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기부자들의 마음이 모여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프렌즈인터내셔널은 이런 발전에 기부자들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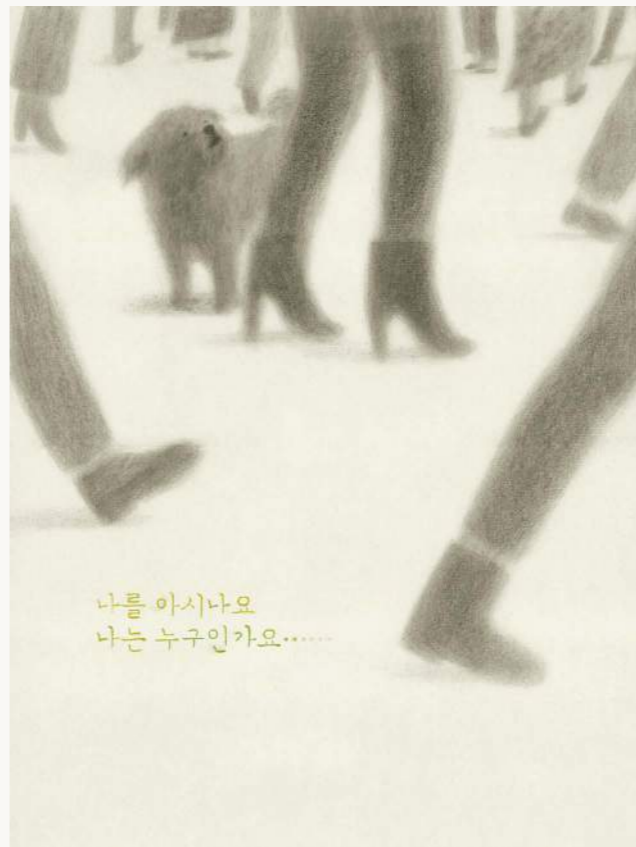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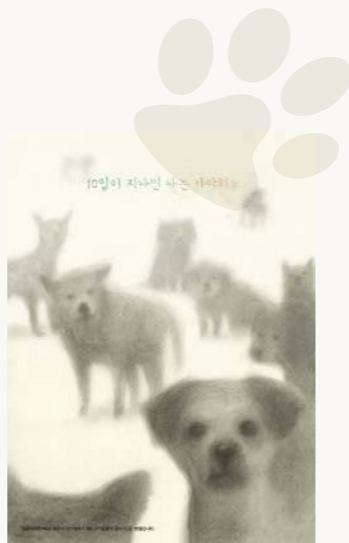




# 참 잘했다고



# 생각 하는 일



김혜정의 그림을 언제 어떻게 처음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오보이!>를 만들던 중 인터넷에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녀의 그림. '아프다'라는 아주 단순한 카피와 함께 나를 원망스럽고 슬픈 눈으로 쳐다보는 강아지 그림을 처음 보는 순간, 뭔가 큰 덩어리가 내 마음속을 꿰고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버림받아 갈 곳 없는 조그만 강아지의 처량한 눈빛은 내가 봐 왔던 그 어떤 사진보다 강렬했어요. 그녀의 그림을 <오보이!>에 꼭 소개하고 싶었던 나는 무작정 그녀의 블로그에 내 소개와 함께 그림을 잡지에 소개하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고, 너무나 다행히도 그녀는 그러겠다고 화답해왔습니다. 그렇게 김혜정의 그림과 <오보이!>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장씩 그림을 보내왔는데 그다음 달에 보내온 그림은 심지어 더 슬펐습니다. 또 그다음 달에 보내온 그림은 차마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달에 보내온 그림을 보는 순간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동물의 처지에서, 동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릴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내가 <오보이!>를 만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김혜정의 그림을 소개한 일입니다. 동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는 데 분명 그녀의 그림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sup>WT</sup>



# 착하게 살아가기의

# 어려움



'지구를 구하는 버섯 친구'  
버섯 키우기 키트 체험기

글  
김건영 자유기고가

내가 좋아하는 일본 시인 다니카와 슌타로의 시 '산다'의 한 구절을 요즘 자주 생각하고 있다. '살아 있다는 것 / 지금 살아 있다는 것 / 그것은 미니스크트 / 그것은 플라네타륨 / 그것은 요한 슈트라우스 / 그것은 피카소 / 그것은 알프스 / 아름다운 모든 것을 만난다는 것 / 그리고 / 감춰진 악을 주의 깊게 막아내는 것' 살아 있는 것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이 시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한다. 내가 감동한 구절은 인용 부분의 맨 마지막 구절이다. 현대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는 참 어렵다. 즐겨 마시는 커피는 국민국의 아동 노동력 착취에 가담하는 셈이 되고, 편하게 대형 할인점에 가서 장을 보면 영세 사업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이 되고 만다. 드러나 있는 적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는 감춰진 악을 어떻게 주의 깊게 막아내야 할까?

나는 커피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집에서 직접 커피를 볶는다. 밖에서 사 마시는 커피값을 감당 못 하거나, 커피 업계의 폭리나 대규모 체인의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들이 심히 거슬리기도 하였다. 커피를 즐기는 일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일이지만 되도록 바른 방법으로 소비하고 싶었다. 가장 덜 괴로운 방법은 최대한 직접 만들어 먹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두의 원가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초기 비용만 조금 들이면 집에서 값싸고 질 좋은 커피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커피를 내려먹다 보니 커피 찌꺼기가 무척 많이 나오게 되었다. 지금껏 들은 상식으로는 탈취제로 이용하거나 화분에 주면 식물이 잘 자란다는 것 정도였다. 나머지는 잘 말려서 버리곤 하였다. 우연한 기회에 '지구를 구하는 버섯 친구'라는 상품을 접하게 되었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카페인이 지렁이의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 지렁이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커피 찌꺼기를 그대로 땅에 묻으면 카페인 때문에 지렁이가 잠들 수 없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감춰진 악을 주의 깊게 막아내'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가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실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곤 하는 것이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무척 피곤해지곤 한다. 현실의 정의는 만화영화처럼 통쾌하지 않다. 그것은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그리고 항상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맹신하면 안 되는 일이다. 유연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나는 '지구를 구하는 버섯 친구'를 기쁜 마음으로 재배해 보기로 한다.

처음 버섯재배키트를 받아서 열어보니 아이들 교육용으로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진 설명서를 들여다보며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제품 옆면에 쓰인 간단한 설명이었다. '고기 대신 버섯을 먹으면, 몸도 튼튼, 지구도 튼튼해집니다. 잘 분해된 커피찌꺼기는 좋은 퇴비가 되어 땅으로 돌아갑니다. 쓰레기에서 시작했지만, 쓰레기를 남기지 않아 지구가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는 육식이 얼마나 지구에 피해를 끼치는지 수많은 매체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기아에 허덕이고, 다른 곳에서는 양질의 고기를 얻기 위해 수많은 곡물을 사료로 사용한다. 또한 차세대 에너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곡물을 이용하여 세계 식량단가를 조작한다는 무서운 주장까지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제품이 얼마나 여러모로 고민 끝에 만들어졌는지 생각하게 되어 문

득 마음이 뭉클해졌다. 비록 미약한 힘일 지라도 '지구를 구하는 버섯 친구' 라는 이름은 과언이 아닌 것이다. 거기다 교육용으로 제작된 이 버섯 재배키트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훌륭하다. 현대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는 자신의 식량을 스스로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육식 자체를 공격하는 것 보다는 공업화된 육식 산업,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행위들과 부수적 피해들, 생명에 대한 존엄의 상실 같은 것을 지적해야 한다. 우리의 언어생활이 그렇다. 닭을 먹는 게 아니고 닭고기를 먹고 소를 먹는 게 아니라 쇠고기를 먹는 우리인 것이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섯에 물을 줄 수 있었다. 아침 외출 전에 버섯에 물을 주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님께 버섯의 안부부터 묻게 되었다. 3일 정도는 지나야 버섯이 자란다는 말을 듣고도 매번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기를 수차례. 집에 돌아와 보니 버섯이 조그맣게 자라 있었다. 물이 부족하면 어쩌나 어머니께 부탁은 했지만 그래도 관심이 부족해 못 자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무럭무럭 자라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보통 음식의 세계에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독버섯 같은 존재들이라는 표현을 쓴다. 직접 키워보니 그건 함부로 안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섯도 무척이나 예쁜 생물이다.

하루하루 몰라보게 자라는 버섯들을 보니 문득 이 시대의 가장들이 생각났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기분이 그럴까. 아직 결혼을 안 한 몸이지만 문득 먼 훗날에 있을지도 모를 그럴 감정에까지 휩싸이고 말았다. 대견함. 우리는 모두 그렇게 자란 사람인 것이다.

잘 자란 버섯들을 보며 이제 곧 수확을 해야겠다, 고 마음먹은 날이었다. 저녁에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순간에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버섯이 우자라겠다며 어머니께서 선수를 치신 것이다. 동생이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 상황으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버섯들은 어머니의 쇠고기 불고기기에 사용되었다. 탐스럽게 자란 버섯 사진들을 보니 누구라도 얼른 따지 않고는 못 배기겠구나 싶었다. 인류는 식량을 채집하는 데에 큰 기쁨을 느낀다. 요즘 모 프로그램에서 오지체험을 하며 식량을 발견하는 장면을 보면 같이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더군다나 직접 키운 것을 수확한다는 것이 어찌 기쁘지 않을까 싶다.

장을 봐서 돌아오니 버섯을 다 쓰지는 않았으니 안심하라는 가족들. 나도 숨쉬를 한 번 발휘해 보기로 했다. 혹시나 버섯이 부족할까 하여 시판되는 버섯을 조금 더 사 갔다. 시판하는 버섯과 비교해 보니 조금 웃자라긴 했지만 무척 신선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이슈가 된 대파 라면에 버섯을 넣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버섯볶음을 만들었다. 대파 라면은 먼저 채소를 볶다가 라면수프, 고춧가루, 약간의 물을 넣고 면과 함께 졸이듯 끓인 후 물을 추가하면 된다. 비록 라면일 뿐이지만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훌륭한 요리가 되는 점이 선정 이유였다. 거기다 버섯과도 무척 잘 어울린다. 버섯볶음 역시 재료를 다듬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조리과정이 어렵지 않아 실패할 확률이 낮고 맛이 좋기 때문에 결정하였다. 버섯볶음에 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버섯을 물에 데친 후 찬물로 헹구어 꼭 짜서 볶으면 요리 후에 물이 생기지 않는다.

시판되는 버섯을 섞어서 요리해 보았는데 역시 직접 키운 버섯 쪽이 식감이 더 훌륭했다. 가족들도 파는 것보다 맛있다고 손을 치켜들었다. 거기다 직접 키운 것을 재배해서 먹는다는 사실은 맛을 더하는 일이 확실했다.

내내 버섯을 키우면서 생각한 것은, 이 제품이 비록 어린이용으로 제작되었지만 회사원들이나 자취하는 청년들도 키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자취방에 하나씩 두고 키워서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것에 대한 생각. 그래서 한정적인 재료로도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맛도 좋은 요리를 고민해 보고 찾아보았다.

사르트르는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시인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섬긴다.' 나는 그 표현을 빌려 이렇게 쓴다. '좋은 요리사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섬긴다'고. 겉보기엔 대단한 차이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결과물의 차이는 크다.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고 왜 그렇게 해줘야 하는지 이해하고 재료를 존중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모든 타인과 사물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아주 깊고도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한갓 버섯이지만 지구를 구하는 버섯이며 손수 키운 것을 애정 하는 사람이거나 존경하는 사람 또는 어여쁜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일. 요리의 끝은 식사 후 주방정리와 한 잔의 차를 마시는 일 까지라고 믿는다.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섬김은 그런 사소한 애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 믿는다. 세계를 깊이 사랑한다면 감춰진 악을 발견하기 쉬워질 것이다. 열심히 살고 버섯을 키우고 예쁜 연애를 하거나 해도 지렁이와 수많은 대상을 구원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구하는 버섯 친구'를 만나보았으면 한다. 지렁이들도 편히 잘 수 있는 밤이 되길 바라며, 누군가 비싸지도 않은 걸 사 먹으면 되는 거지 귀찮게 뭐 하려 하느냐고 물으면 '착한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라며, 더 많은 사람이 '감춰진 악을 주의 깊게 막아내는 것'을 생각하길 바라며. 



김건영 재택 독서가. 무허가 바리스타.  
<술을 때도 밥은 눌러 담은 사람들 연대> 초대 회장,  
우리 집 부주방장, 가솔 고양이 '단이'의 말형

# 전철 안 삶의 풍경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고단한 몸을 전철에 맡기고,  
어딘가로 토해내 주기를 기다립니다.  
세월은 전철처럼 똑딱똑딱 규칙적으로 흘러갑니다.

“이번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입니다.  
내리실 때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 전주영

동양화를 하면서 '선'의 매력에 빠져서 '선' 그림을 즐겨 그리게 된 일러스트레이터. 지나가는 일상의 소소한 모습들을 가만히 앉아 그림으로 담아내는 것을 좋아한다.

[blog.naver.com/jjy890704](http://blog.naver.com/jjy890704)

# WT News

2014. 3. ~ 11.

한국수출입은행 희망씨앗  
2014 프로보노 봉사단(5기) 발대식 열려 4/10



한국수출입은행 프로보노 연계사업 발대식이 지난 4월 한국수출입은행 컨설팅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수출입은행 프로보노 봉사단은 경영전략, 세무, 재무·회계, 외국어 번역 등 전문분야 상담이 가능한 직원들로 구성돼, 경영상담과 자문을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보노 봉사단의 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과 프로보노 사업 진행 실무 안내가 이뤄졌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4기 입주팀 소셜미션공유회 개최 5/21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4기, 24개팀이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기업의 방향을 찾는 소셜미션공유회를 가졌다.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위한 소셜미션을 발표하고 서로 평가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를 마련한 장동렬 재단 인큐베이팅팀 팀장은 "돈을 버는 문제도 결국 소셜미션과 연관된 문제이다. 자신이 풀 사회문제에 대한 철학과 가치 등 사소한 것이라도 품고 가야 당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라며 공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한일청년니트비교포럼 개최 6/25



한일 청년 전문가들이 모여 청년 니트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보기 위한 포럼이 서울시 청년허브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일본 청년니트백서', 한국어판 발간기념 행사와 함께 시작된 포럼 1부에는 니시다 료스케 리츠메이칸대 부교수와 구도 게이 소다테아게넷 이사장 그리고 이종한 유유자적살롱 공동대표의 발제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민달팽이유니온, 기본소득창'소'년네트워크, 하자센터, K2인터네셔널 등 한일 청년단체들이 모여 자립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비전선포 및 기금전달식 개최 6/25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비전선포식과 기금전달식이 흥대 카페 슬로비에서 열렸다. 올해는 창업기 7개팀과 성장기 7개팀 등 총 14개 친환경 사회적기업이 선정되어 사업 지원금과 맞춤형 컨설팅을 받는다. 이날 행사에는 (주)두레마을, 사회복지법인평화의마을, (주)에코그린 등 7개팀 대표가 모여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돌봄서비스 분야 취약계층 고용안정화 사업  
기금 전달식 열려 5/27



「2014년 돌봄서비스 분야 취약계층 고용안정화 사업」 기금 전달식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이뤄졌다. 2011년부터 3년간 지속해온 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종사자 44명이 신규 고용되고, 296명의 고용이 안정됐다. 올해도 사업을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5곳(주)행복한 나눔, (주)휴먼케어, 전주사회서비스센터, (주)작은자리돌봄센터, (주)성동돌봄센터)의 취약계층 근로자 170명에게 고용 안정 향상을 위한 수당과 교육이 제공됐다.

글로벌드라이브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개최 6/19



재단은 지난 6월 SK-T타워에서 글로벌드라이브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이 프로젝트는 머라이어 멜리저스와 스티븐 리 윌워스 이사 1여 년간 중고 트럭을 타고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등 3대륙 20개국 100여 개 사회적기업을 방문해 사회적기업의 생태계와 기업 정보를 축적하고, 인클루시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 사업이다. 재단과 SK행복나눔재단 그리고 비영리 단체 윌워스스는 탐험단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 투자를 연계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발족식 개최 7/30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납부한 부금을 재원으로 긴급 경영 자금과 상해 보상 자금 등 필요 시 적립된 재원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이 발족됐다. 이 기금은 단순 상호부조에서 벗어나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개정과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은 36개월, 48개월, 60개월 만기로 10만원 단위로 부금을 넣으면 연 2~3%이내의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씨드머니로 1억원을 후원해 기초 재정을 마련했다.

상담문의  
02.330.0772

# WT News

함께일하는재단 전자도서관 열어

8/4



재단 도서관이 일반인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전자도서관(www.hamkkelibrary.org)을 열었다. 총 3,600여 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재단 도서관은 2010년 문을 연 이래로 재단 성격에 맞는 주제전문도서관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일반 사용자는 재단 전자도서관을 통해 소장 자료의 검색 서비스 및 외부 학술정보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라이트어램프 자립지원사업  
중간평가워크숍 열려

8/21



라이트어램프(Light a lamp)사업 중간평가워크숍이 전주에서 1박 2일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14년 상반기 동안 11개 기관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장단점과 노하우를 살펴보고 전파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이트어램프는 2009년 SBS희망TV(현재 희망TV SBS)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활용하여 국내 실직·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도 자립지원사업에서는 특기적성과 진로자립 분야에 7개 기관, 지역사회 지지기반 마련 분야에 2개 기관, 혼합형 2개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3기 파트너 선정

8/21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3기 파트너가 선정됐다. SBS희망TV로 모인 기부금을 통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해외빈곤가정 부모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와 급수시설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며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단체는 카자흐스탄 엘다니 파운데이션, 과테말라 사길 그룹, 우간다 스파우츠오브워터, 지구촌나눔운동 티모르게이터 쿠키 등 4곳이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평균 3만불의 사업 지원금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KAIST 사회적기업 경영전문가 과정'  
수료식 개최

8/30



2014년도 'KAIST 사회적기업 경영전문가 과정' 수료식이 KAIST 경영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사회적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경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Mini-MBA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교육과정 모집에는 백여명 이상의 지원자가 접수되어 사회적기업 전문 경영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총 45명의 수강생 중 40명이 수료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교육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2014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페스티벌'  
(주)알로하아이디어스, 이플약초협동조합 우수창업팀 선정

11/5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개최한 「2014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페스티벌」 우수창업팀 선발에서 재단 소셜벤처인큐베이팅 창업팀인 (주)알로하아이디어스와 이플약초협동조합이 최우수상을, 이피콤과 상상우리가 우수상을 받았다. (주)알로하아이디어스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최선'이라는 모토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독서보조기기(담뱃이)를 개발하는 소셜벤처다. 또한 재단과 인큐베이팅팀 김나연 매니저가 각각 우수기관과 우수멘토로 선정되었다.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개최

10/14~16



사회적기업가들의 교류와 협력의 장인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이하 SEWF 2014)가 10월 14일부터 3일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에는 세계 50여 개국, 1천여 명의 국내외 사회적기업, 관계기관 및 전문 관계자들이 참여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장을 펼쳤다. SEWF 2014에서는 전 세계 사회적기업의 역할 증대를 위한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Social Change through Social Enterprise)'를 주제로 삼고 '사회혁신', '사회통합'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할 요소로 '사회투자'에 대한 논의가 포럼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WT

<위로가 필요한 사회, 위로하는 일이 필요한 사회> 특집을 준비하며, 이명수 심리기획자를 만나러 가는 길, 안산 거리가 참 스산해 보여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명수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내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라면 누구나 세월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유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 한 편이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라현윤\_홍보팀 팀장



사회의 많은 병폐가 애정결핍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정결핍 사회, 남은 애정이 있다면 마구마구 퍼줍니다! '와락' 안아주고, '공감'해주는 '이웃'으로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래도 이 위태로운 사회를 견뎌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포항에서 만난 김흥구 바리스타의 시화처럼 로맨틱한 겨울 나시길.

이은주\_홍보팀 선임PR매니저

세상에는 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다.  
세상에는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그리고,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무척 많다.  
그 일과 그 생각과 그 사람을 만나면서 짜고, 달고, 시고,  
쓰고, 매운, 인생의 다섯가지 맛을 온몸으로 느낀다.

윤영주\_홍보팀 책임PR매니저

### 독자 참여 안내

매호 독자 한 분을 선정하여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 후기를 받아 꾸러지는 <착한 서포터즈> 코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재단 SNS를 주목해 주세요. 다음 호 발간에 앞서 체험할 상품에 대한 안내와 서포터즈 모집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www.facebook.com/hamkke.org](http://www.facebook.com/hamkke.org) 트위터 @WT\_hamkke

### 광고 기부 안내

사회적기업 상품, 지역 특산물, 공정무역 제품 등 정직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이른바 착한 상품을 소개·홍보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사회』의 광고지면을 내어 드리는 <착한소비365 광고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hamkke@hamkke.org](mailto:hamkke@hamkke.org))로 문의해 주세요.

### 구독 해지 및 주소 변경

함께일하는재단 홍보팀 02-330-0713~5, [hamkke@hamkke.org](mailto:hamkke@hamkke.org)

무료로 배포되는 『함께 일하는 사회』는 재단 홈페이지([www.hamkke.org](http://www.hamkke.org))에 업로드된 PDF나, 재단 블로그([blog.daum.net/hamkkeorg](http://blog.daum.net/hamkkeorg))에 포스팅된 글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재단 임직원: 열람, 복사, 대출  
외부 이용자: 열람, 복사

이용시간 열람시간: 10:00-17:00(월-금)  
휴간일: 법정공휴일과 토, 일요일

소장자료 현황 재단발행도서: 1,203권  
단행본: 국내서 1,160권 / 외국서 204권  
연구보고서: 1,121권  
정기간행물: 15종  
기타: CD 35종(재단활동과 사업관련) /  
비디오 60여 종 (재단활동과 사업관련)



## 함께 일하는 재단

## 전자도서관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 도서관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일자리 정책 등에 관련된 유용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업무자료로 활용하고, 모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3천6백여 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전자도서관 홈페이지([www.hamkkelibrary.org](http://www.hamkkelibrary.org))를 통해 소장자료의 검색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서관을 통해 필요한 학술정보를 신속, 정확,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hamkkelibrary.org



## 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합니다

Work Together Fondation Digital Library



함께일하는재단은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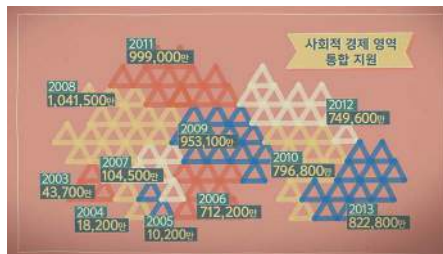
빈곤가정 부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대안 경제와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 내는 '일'을 했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구나 일을 통해  
희망을 찾고 행복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세상  
바로, 함께일하는재단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지금과 달라질 수 있도록  
일로 행복하고  
일로 꿈꾸고  
일로 세상에 맞설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 홍보영상  
<http://hamkke.org/archive/multimedia.asp>

